

일본 근세 근현대사

제 1장. 오다 노부나가와 도요토미 히데요시 정권

1. 유럽인의 동아시아 진출

- * 일본 : 센고쿠 시대 (15c~16c)
- * 유럽의 대항해시대
: 스페인, 포르투갈이 선두 주자, 르네상스와 종교 개혁, 동아시아 진출, 중계무역에 참가
- * 중국(明)의 海禁政策 : 사무역 금지, 동북해를 중심으로 상호 무역을 함

2. 남만무역과 기독교

- * 남만무역 : 1543년 다네가시마에 중국 선박이 표착 → 뱃포 (센고쿠 다이묘의 신병기)
- * 1584년 규슈의 히라토에서 스페인 사람이 무역을 시작
- * 기독교 포교
: 프란시스코 자비에르, 기독교 영주 (영주들이 무역에 의한 이익을 취하고 포교활동을 도움)

3. 오다노부나가의 통일 사업

가. 센고쿠 시대의 군웅 중에서 가장 먼저 정국 통일을 위한 움직임을 보인 것이 오와리(尾張)의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였다. 그의 이름은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된 것은 1560년 이마가와 요시토모를 오와리의 오케하자마 전투에서 격파하면서이다. 노부나가는 1568년에 교토로 상경하여 전국 통일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 그러나 노부나가는 1582년에 서부 일본의 대영주 모리씨를 공격하고 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격려하기 위하여 소수의 병력을 이끌고 머물던 교토의 혼노지에서 부하 아케치 미쓰히데의 기습 공격을 받고 사망한다.

나. 오다 노부나가

- * 오와리 지역, 천하포무, 뱃포부대, 불교의 탄압 (엔랴쿠지), 무로마치의 멸망.
- * 아츠지성 축조(오미 지방), 잇코잇키 세력의 제압, 아케치 미쓰히데의 암살
- * 오케하자마전투 : 1560년 이마가와 요시모토를 격파하면서 전국에 알려지고 유력한 영주로 성장함
- * 라쿠이치, 라쿠자 정책
특권 상인의 동업조합인 자(座)의 독점을 막고, 상품 유통의 원활과 확대를 위함, 조카마치의 번영
- * 통일사업 지향배경 : 넓은 지역의 잇기, 상공업 활동과 상품유통의 전국화, 하극상 풍조 단절

4.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전국 통일

가. 노부나가의 통일 사업을 계승하여 전국 통일을 완성한 것은 그의 가신이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였다. 그는 1583년 노부나가의 중신이면서 동료였던 시바타 가쓰이에를 시스가타케 전투에서 물리치고 노부나가의 후계자로써의 지위를 확립하였다. 그리고 1587년부터 1590년까지 규슈, 간토, 도후쿠 지방의 여러 다이묘를 차례로 복속시켰다. 히데요시는 1592년 음력 4월에 15만 대군을 동원하여 조선에 쳐들어왔으나 국내적으로 방대한 전쟁 비용과 병력을 무의미하게 소모한 결과 도요토미 정권을 쇠퇴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이 시기에는 검지, 가타나가리, 히토바레이레이 소위 '병농 분리'가 완성되었다

나.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 * 전국 통일, 오사카성 축성, 다이묘 복속, 천황 환대 (주라구다이), 관백에 이어 태정대신에 오름
- * 소부지레이(惣無事令) : 각 다이묘들의 領國의 확정을 히데요시에게 위임할 것을 강제로 요구함
- * 도요토미 정권조직
- 오사카 → 후시미 이동, 광산(직할지), 화폐 주조, 부유 상인 통제, 영지와 농민의 관계 단절,
- 선진 지대 장악 (경제력, 교통 수송력 활용), 중앙정부조직 정비 부족

* 도요토미 정책 : 병농 분리의 완성

- 토지 정책 : 다이코 검지 (토지 측량, 경작지, 택지 조사), 석고제 (생산력을 쌀의 양으로 환산)

- 가타나가리(刀狩令) : 농민의 무기 소지 금지

- 히토바레이레이(人掃令) : 신분통제령, 무사가 조닌, 백성으로, 백성이 상공인이 되는 것을 금지

* 조선 침략

- 임진왜란 (분로쿠노에키. 文祿の役. 1592). 정유재란 (케이초노에키, 慶長の役. 1597)

- 도요토미 정권쇠퇴, 인쇄술 전파, 도공 연행

5. 모모야마 문화

* 15~16세기에 걸친 센코쿠시대의 문화를 문화사에서는 (아즈치·) 모모야마 시대로 구분한다. 모모야마의 문화는 일본 중세와 근세를 연결해 주는 문화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센코쿠 시대의 다이묘들은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영국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경영하였다. 성곽은 방어 시설이자 영주가 거주하는 공간이었다. 또 정치의 중심지였던 만큼 웅장하고 화려하게 장식되었다.

* 이 시대에는 다도, 꽃꽂이 등 각종 예능이 발전하였다. 특히 바둑, 장기, 스모 등의 오락은 다이묘 권력의 보호를 받으면서 발전하였는데, 스모는 서민들의 오락으로도 인기가 있었다. 또 이 시대에는 서양인이 일본을 왕래하면서 서양의 문화가 일본에 소개되었는데, 이 문화를 남만문화라고 하였다

* 모모야마 문화특징

- 현실생활 긍정(무사. 불교 영향력 감소, 세속적). 신선하고 호화로움, 웅대하고 화려함

- 성곽과 저택 건축, 덴슈가쿠(天守閣), 아즈치성, 후미성, 오사카성

- 쇼인즈쿠리거관(書院造), 다미에 장벽화, 가노파 (장벽화), 가이호 유소, 하세가와도하쿠 (수목화)란마 조각

* 마치슈의 생활과 예능 : 교토, 오사카, 하카타 지역

와비차(센노 리큐), 가부키 오도리(이즈모노 오키니), 닌교 조루리, 꽃꽂이, 향도

* 남만문화

이국 정서의 문화 (유럽, 포르투갈), 남만 병풍, 천문학, 활자 인쇄기(서적, 사전, 일본 고전 출간)

제 2 장. 막번 체제의 성립

1. 에도막부의 성립

가. 1606년부터 1867년까지 약 265년간 지속된 에도시대는 국가제도가 통일적으로 정비되고, 국민문화가 성숙하고, 열도 사회의 균질화가 크게 진행된 시대였다. 그리고 이러한 발전은 이어지는 메이지 시대 이후의 일본의 국가 및 사회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이 시대에 중앙 정부인 막부가 전국의 약 260여 개에 달하는 번을 편성해 열도 규모로 국민을 통치했다. 일체의 대외전쟁과 내전이 발생하지 않았던 에도 시대는 세계사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평화로운 시대였다.

나. 초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아스는 1603년에 모든 다이묘에 대한 지도권의 정통성을 획득하고자 천황으로 하여금 자신을 세이이다이 쇼군(征夷大將軍)에 임명하게 하여 에도에 막부를 열었다. 그리고 1614년과 1615년에 걸쳐 두 번의 전쟁을 일으켜서 도요토미씨를 멸망시켰다 (오사카성)

다. 도카이도(東海道)지방에서의 위력 → 간토(關東)지방의 다이묘(1590년)

* 세키가하라 전투(1600년)

- 히데요시 사망 후 문리파(이시다 미쓰나리)와 무단파(가토 기요마사)가 대립, 전추를 벌임
- 이에아스가 속한 무단파의 승리로 독자적인 정권 수립에 착수 : 에도 막부를 옴(1603년)

* 도요토미 정권타도 : 도요토미 히데요리를 오사카성 전투(1614년, 1615년)로 멸망시킴

2. 막번 체제

가. 에도 막부의 제도는 제2대 쇼군 히데타다와 제3대 쇼군 이에미쓰 시대에 거의 정비되었다.

쇼군은 다이묘들과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막부는 다이묘뿐만 아니라 조정과 사원, 신사도 통제하에 두었다.

그리고 막부는 데라우케(寺壽ケ)제도를 만들어 改宗을 실시하고 불교로 개종하게 하는 등, 기독교에 대한 엄격한 감시를 지속해 갔다.

나. 쇼군과 친소관계 : 다이묘 → 신판 다이묘 [고산케(御三家)], 후다이 다이묘, 도자마 다이묘

* 번 : 다이묘가 지배하는 영지와 그 지배 기구

다. 막부의 제도 정비

* 도쿠가와 이에미쓰

일국일성령 (다이묘의 거성을 한정), 武家諸法度 (다이묘 통제), 산킨고타이(參勤交代)

* 막번체제 (사회 구조, 생산 구조) : 쇼군과 다이묘가 토지와 백성을 통치하는 지배 체제

- 사회의 기초는 貢租를 부담하는 혼바쿠쇼에게 놓여 있음

라. 쇼군의 군사력, 경제력 : 직할령(덴료,天領), 광산 수입, 화폐 주조권

마. 중앙 행정 조직

로주(수상, 정무 담당), 오메쓰케(다이묘 감찰), 메쓰케(하타모토 감찰), 3부교, 효쥬슈(재판)

바. 조정과 사원에 대한 통제

* 금중병공가제법도(禁中并公家諸法度)

* 제종사원법도(諸宗寺院法度, 승려 통제), 에후미 강화(기독교 신자 통제),

데라우케 제도(사원의 檀家を 입증하게 함)로 불교로 개종하게 함

사. 마을과 백성

* 마을(村) : 생산과 행정의 단위로 혼바쿠쇼(本百姓)에 의하여 운영됨

* 무라우케세이(村請制)

- 막부와 번, 하타모토가 마을의 자치에 의존하여 과역의 할당과 수납이 가능하게 됨
- 고닌구미, 논밭매매금지령, 분지제한령, 경작지이탈금지령

3. 도시와 조닌

가. 도시 상공업자를 조닌이라고 불렀는데, 그들은 직업별로 일정한 장소에 집단적으로 거주하였다. 농촌이 막번 권력에 의하여 엄격하게 통제당하고 있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도시에서는 상공인들이 활발하게 활동하였고, 그 결과 도시는 많은 사람이 옮겨 와 점차로 발전하였다. 특히 삼도(三都)로 불리는 에도, 교토, 오사카는 눈부시게 발전하였다. 삼도의 발전과 더불어 다이묘의 거성을 중심으로 하는 조카마치도 발전하였다.

나. 조닌 : 마치카타(조닌이 사는 공간), 주택 소유, 연공 부담 해방, 도시기능 유지 역할, 빈부 격차

다. 조카마치(城下町), 미나토마치, 문젠마치, 슈쿠바마치

다. 쇼쿠닌(職人) : 오야가타와 침식을 하면서 기술 수련 후 독립

4. 신분 질서

가. 일본 근세의 마을(村)은 대개 50호에서 100호 정도의 규모였다. 농민들은 대부분 벼농사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그 특성상 마을을 하나의 생산 단위로 하여 공동체를 구성하였다. 천황가와 구게(公家), 상층 승려, 神官들도 무사처럼 지배 계급이었다. 피지배 신분으로는 농업을 중심으로 임업과 어업에 종사하는 백성, 수공업자인 職人, 상업에 종사하는 상인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의 조닌 등 세 부류가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이러한 신분제도를 土農工商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다.

나. 무사의 특권 : 정치와 군사를 독점, 묘지(苗字)와 대도(帶刀의) 특권, 姓을 사용하는 권리

* 기리스테고멘(切捨御免)

* 무사는 쇼군을 정점으로 다이묘, 하타모토, 고케닌의 구성으로 충성과 상하 간 구별이 엄격함

다. 하위 신분 : 에타, 히닌

라. 여러 신분은 무사의 主從制, 백성의 마을, 조닌의 조, 쇼쿠닌의 나카마 등 단체와 집단마다 조직됨

제 3 장. 막부의 대외 정책과 에도의 건설 및 간에이 문화

1. 초기의 외교관계

가. 이에야스는 히데요시와는 달리 **평화적인 대외 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했다.

* 1609년에 네덜란드에게, 그리고 1613년에는 영국에 대하여 무역을 허가, 이 두 나라는 히라도(平戸)에 상관(商館)을 두었다.

* 이토와푸제도

이토와푸 나카마라는 특정 상인에게 수입한 생사를 일괄적으로 구입하게 하여 포르투갈 상인들의 이익 독점을 배제한 제도

나. **일본인의 해외 진출**도 히데요시 시대에 이어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 주인선(朱印船) 무역 제도

* 기독교는 금하지만 평화적인 무역은 장려함

2. 막부의 쇄국정책

가. 활발한 해외 무역도 **막번 체제가 견고해지자**, 일본인들의 해외 도항과 무역에 제한이 가해지게 되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기독교 금교(禁敎) 정책**이다.

* 막부의 무역 이익 독점을 위한 통제 : 내항 국가와 기항지의 제한

* **시마바라의 난**(1637년) : 규슈의 기독교 신자들이 영주의 압정을 견디지 못하고 일으킨 난

* 포르투갈 선박의 내항 금지(1639년), 히라도의 네덜란드 상관을 데지마로 옮김(자유로운 교류 금지)

나. 쇄국 정책의 효과

* ① 막부의 무역 이익 독점, ② 외국의 산업과 문화 영향을 제한 ③ 기독교의 금압이 이루어짐

* 막부의 통제력의 강화

3. 나가사키 무역

가. 쇄국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일본에 내항하는 무역선은 **네덜란드 선박과 중국 선박으로 한정함**

나. 무역항은 **나가사키 한 곳으로 제한**되었다.

다.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의 바타비아에 설치한 **동인도 회사**의 지점으로 **나가사키의 데지마**에 상관을 두고 무역의 이익만을 추구함 : 네덜란드 풍설서를 통한 해외 사정 파악

4. 조선, 류큐, 에조치

가. 조 선 : 기유약조 체결 (1609년. 무역선, 통신사 파견) → 일본 국내 정세 파악이 목적임

나. 류큐 왕조 : 사쓰마의 시마즈씨 군대를 파견하여 복속시킴

다. 에조치(蝦夷地) : 마쓰마에번의 마쓰마에씨에게 아이누와의 교역 독점권을 보장함

5. 에도의 건설과 발전

가. 에도는 인구 백만의 대도시로 발전하였는데 이를 위해 상수도(다마카와 조스이. 玉川上水) 건설을 비롯하여 다양한 도시 기반이 조성되어 갔다.

* 메이레키(明暦)의 화재 사건 (1657년)

* 인구의 증가와 면적 확대 : 조년의 경제력, 문화의 성장 (가세이 문화로 성장)

→ ‘오에도(大江戶)’의식, 에dot코(江戸っ子)’의식

나. 이때 생겨난 니혼바시(日本橋)는 오늘날까지 일본 경제의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다

다. 에도의 주거지

- * 야마노테(山水) : 다이묘의 저택, 하타모토, 고케닌의 집을 배치
- * 마치지(町地) : 조닌들의 거주지, 저지대의 매립지
- * 사사지(寺社地) : 에도성의 방어 거점
- * 나가야(長屋) : 서민들의 대표적 주거 건물

6. 간에이 (寬永) 문화 (1624년~1643년)

가. 에도 시대 초기 문화는 모모야마 문화를 계승했지만, 막번 체제가 안정됨에 따라서 간에이 전후에 새로운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다.

나. 학문 분야에서는 주자학(후지와라 세이카)을 중심으로 유학이 성행했다. 회화에서는 가노파(狩野派)에서 가노 탄유가 나와 막부의 어용 화가가 되었는데, 그 자손은 양식을 답습하는 데 그치고 말았다.

- * 건축 : 닛코 도쇼구 (日光 東照宮), 가쓰라리큐 (桂離宮)
- * 회화 : 가노 탄유, 다와라야 소다쓰(장식화), 혼아미 고에쓰 (서예, 마키에)

제 6 장. 막부 정치의 개혁

1. 무사의 궁핍

- * 18세기 들어오면서 막번체제는 붕괴되는 양상을 보여 주기 시작하였다 : 막부 재정의 적자 전환
→ 무사 계급의 경제적 궁핍으로 지배자로서의 자각도 점점 상실되어 감
- * 도시 무사들의 소비 생활의 지출 증가로 산인들로부터 빚을 얻게 됨

2. 농촌의 변화

- 가. 화폐 경제의 확산 → 농촌의 계층 분화 → 농촌의 황폐의 순서로 전개됨
- 나. 화폐 경제의 확산으로 가난한 농부와 부유한 농민 계층으로 나뉘어짐 : 마을 제도의 유지 곤란
- 다. 과도한 연공 수취, 기근과 흉작 등으로 경작지를 고리대금업자에게 넘겨 주고 소작인으로 전략함
: 18세기 초 교호 대기근이 발생함

3. 교호 개혁

- 가. 제8대 쇼군 도쿠가와 요시무네는 19년 동안 재직하면서 이에아스 시대를 모델로 삼아 막정 개혁에 몰두하였다. 이것을 교호 개혁이라고 한다 : 측근 정치 지양 (쇼바요닌 폐지)
 - * 무예를 장려,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권장함
 - * 다시카가 제도(足高)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기 위한 시행 → 마치부교로 오카 다다스케를 발탁)
 - * 구지가타오사다메가키 (公事方御定書 : 증가하는 재판에 대한 조치)
 - * 메야스바코 (目安箱. 투서함)를 설치 : 施政의 참고 의견, 사회 사정의 목적으로 투서함 설치

- 나. 막부 재정 여건의 개선 → 막령의 石高가 1할 이상 증가, 연공 수입 증가로 재정이 다소 회복
 - * 정면법, 아게마이 제도 (산킨고타이 체제 기간을 절반으로 줄여 주는 대신 쌀을 현상케 하는 제도)

다. 산업 진흥책 추진

- * 새로운 경작지를 개발에 주력하고 고구마 재배를 연구케 함
- * 가부나카마 (株仲間)를 허가하여 상업을 권장함
- * 서양 서적을 수입하도록 하여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게 함 → 서양 학문인 蘭學이 본격적으로 시작
- * 쌀값 인상으로 막번의 재정 안정을 시도 : 오사카 도지마 쌀시장 공인 → 고메쿠보(米公方) 쇼군

4. 다누마 시대 : 18세기 후반 → 9대 이에시게, 10대 쇼군 이에하루는 무기력한 쇼군

- 가. 요시무네 이후, 쇼바요닌에서 로주(老中)가 된 다누마 오키쓰구가 십수 년간에 걸쳐 실권을 장악함
 - * 농촌과 도시의 변화, 막부의 재정적 위기, 잇키의 발생, 조정과 막부 간의 긴장관계, 서양의 통상 요구 등으로 위기를 맞음

- 나. 다누마 오키쓰구는 매우 현실적인 정치가였다. 오키쓰구의 정책은 상인의 힘을 이용하면서, 막부재정을 과감히 개선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에 자극을 받아 민간의 학문·문화·예술이 다양한 발전을 이룸
 - * 도시와 농촌의 상공인들의 조합을 동업조합으로 널리 공인함 : 영업세의 증수를 지향
 - * 금을 중심으로 하는 화폐제도의 일원화 시도
 - * 경작지 개발 : 오사카 상인의 힘을 빌려 대규모 간척 사업
 - * 에조치의 개발과 러시아인과의 교역 가능성 조사
 - * 모가미 도쿠나이(最上徳内)를 에조치에 파견
 - * 홋카이도의 풍부한 해상 자원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 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막부의 관리인 사이에 뇌물이나 연줄로 인한 인사(人事)가 횡행하는 등, 무사 본래의 사풍(士風)을 퇴폐시켰다는 비판이 강했다.

5. 잇키와 우치코와시

가. 덴메이의 기근(1783년 아사마산의 폭발로 인한)이 시작되고, 하쿠쇼잇키(연공 경감, 부정한 관리 교체)와 우치코와시(쌀 가격과 대상인 습격)가 전국에서 빈번하게 일어난 가운데, 1784년 오키쓰구의 아들인 와카도시요리의 다누마 오키토모가 에도성 내에서 살해당했다.

나. 오키쓰구의 세력은 급속하게 후퇴하였고, 1786년 쇼군 도쿠가와 이에하루가 사거하자 다누마 오키쓰구를 파면하고 대부분의 정책들도 중지되었다.

6. 간세이 개혁 : 제11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나리와 마쓰다이라 사다노부 (松平定信)

가. 시라카와 번주인 마쓰다이라 사다노부가 로주에 임명됨 : 다누마와 대조적인 성격

나. 다누마 시대의 정책을 개선하고 재정 기반을 복구하고 土風을 바로잡아 막부의 권위를 재건하고자 한 개혁정치

- * 농촌 부흥 (농촌의 내실화), 식목과 개간의 장려, 오사메야도(納の宿). 연공미 운송업자) 조직 해체
- * 임금 노동자의 귀향, 경지 복구를 위한 공금 대부, 상품 작물 재배와 가내 수공업 제한
- * 도시 정책 : 귀향령, 치안 대책(이시카와지마에 닌소쿠요세바를 설치. 노숙자 관리), 철부적금,
- * 하타모토, 고케닌 구제 : 기엔레이(棄捐令. 다이묘, 하타모토의 검약을 요구, 후다다시(금료인 쌀을 현금으로 바꾸어 주는 상인)에게 빌려준 돈을 포기하게 함

다. 사상측면 : 간세이 이학의 금지(寬政異學の禁)

주자학을 정학으로 하여 1790년에 유시마 세이도(湯島聖堂)에서 주자학 이외의 강의, 연구를 금지

라. 시라카와 번주인 마쓰다이라 사다노부가 6년여 만에 로주직(老中職)에서 물러난 후, 쇼군인 도쿠가와 이에나리(德川家齊)가 19세기 초의 정치를 직접 관장하였다.

마. 개혁에 대한 반발

- * 엄정한 통제와 검약령에 대한 민중의 반발
- * 존호일건 (尊號一件)

고카쿠 천황의 아버지에게 태상천황이라는 칭호를 부여하고 싶다는 요청을 거부함

→ 이에 대한 쇼군과 로주의 대립을 원인으로 사다노부를 퇴진시킴

- * 尊王論이 고조되면서 천왕의 권위가 막부 말기로 가면서 부각되기 시작함

제 4 부. 근대 국가의 성립

제 8 장. 에도 막부의 멸망과 메이지 유신

1. 개국과 통상조약의 체결

가. **산업혁명의 여파**(서양 열강 : 시장과 식민지 획득에 본격화 →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의 최대의 시련), **청나라의 패배**
(아편전쟁과 중국 시장 공략 과정에서 청나라의 패배), **미국의 태평양 진출**(중국 시장을 겨냥한 태평양 직항로 개발에 관심, 중간 기착지로서 일본의 개국이 필요)

나. 페리의 등장과 일본의 개국

- * 1854년 1월 **미.일 화친조약** 체결 → 통상조약에서 불평등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단서
- * 1856년 일본에 부임한 총영사 해리스가 통상조약의 체결을 강요함
:攘夷의 분위기로 천황의 조정이 칙허를 거부함 → 1858년 막부는 조정의 칙허를 받지 않고 조인
- * **안세이(安政)조약 체결** : 네덜란드, 러시아, 영국, 프랑스와도 유사한 조약을 체결함
- * 서구 열강보다 뒤쳐진 2등 국가로 전락하고 조선은 18년후 조약체제상 3등 국가로 전락하게 됨 → 국제법 무지와 외교적 미숙함

2. 국내 정국의 변화

가. 개국 후 밖으로는 서양 열강의 외압이 거세지고 안으로는 막부의 권위가 추락하여 정치·사회 전반에 유례 없는 동요와 혼란이 일어났다. 한 마디로 체제의 말기적 현상이었다.

나. 에도 막부의 250년간 정치 관행이 흔들림 : **천황과 조정의 조연 요구, 도자마 다이묘의 정치 해금**

다. **막부의 독재정치의 붕괴**

- * 난키파의 승리로 보수파인 이이 나오키(井伊直弼)가 다이로에 취임
- * **안세이(安政)의 대옥(大獄)** (막부의 독자적으로 미.일 통상조약을 체결하고 반대파인 히토쓰바시파를 비롯한 교토의 조정과 도자마 다이묘들의 가신 세력을 처벌, 탄압),
- * 사쿠라다몬 밖의 변(櫻田門) (안세이 대옥의 반발로 하급무사들이 탈변하여 이이 나오키를 암살)

3. 개항의 영향

가. **구미 무역의 개시** : 1859년 요코하마, 나가사키, 하코다테의 개항장에서 시작
→ 교역에 대한 반감과 불안 심리는 양이운동의 주요원인으로 대두됨

나. 양이운동의 움직임

나마무기(生麥) 사건(1862. 영국인을 사쓰마번의 무사가 살해한 사건), **영국 영사관 방화사건**(1862년. 조슈번 하급 무사들이 에도 외곽에 건설중인 영사관 방화)

4. 공무합체의 움직임과 존왕양이 운동

가. **공무합체운동** : 조정과의 융화와 막부 권위의 회복 → 천황의 여동생과 장군 이에모치의 정략 결혼
* **사쓰마번의 실력자인 시마쓰 히사미쓰**가 에도에 들어가 **막부정치의 개혁을 요구** : 막부가 받아들임
→ (**문쿠(文久)의 개혁**, 1862년.막부와 조정의 정무 조정역 배치, 산킨고타이제 완화, 정치 참여가 금지된 도자마번인 사쓰마와 협조 관계를 맺음 (정치금지 해금))

나. **존왕양이 운동**

- * 조상 대대로 지켜 온 쇄국정책을 스스로 파기한 막부에 대해 불만이 고조되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막부에 저항하는 세력이 **서남 지역의 번**을 중심으로 등장하였다.

- * 조슈번사들은 조정이 막부로 하여금 양이 실행의 명령을 내리도록 요구함
: 막부는 양이의 결행을 명령하고, 양이 당일 조슈번은 외국선에 포격을 가함
- * 존왕양이운동 (尊王攘夷運動)
: 조슈번이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구미 열강과 조약을 체결하였던 막부는 곤혹스러운 입장임
→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천황을 자신들의 편으로 끌어들이고 존왕양이론을
내세워 국민적 공감대로 형성하였다. 이를 계기로 존재조차 생소했던 천황이 갑자기 정치의 전면에
부상하면서 정국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기 시작하였다.

5. 양이의 실패와 토막운동

- 가. **8.18 정변** (사쓰마번과 아이즈번(막부 온건파)이 존왕양이파의 중심세력(조슈 세력)인 혁신 공경 세력을 교토에서 추방)
- 나. **긴문의 변 (禁門の變)**. 조슈 세력의 반격은 패배로 끝나고 **조정과 막부와 사쓰마번은 제1차 조슈 정벌을 단행하기로 결정함**)
- 다. **사쓰에이 전쟁** (1863년. 시모노세키 포격사건과 나마부기사건의 책임을 묻기 위한 영국 해군과 사쓰마 간의 전투)

라. 제1차 조슈정벌과 양이의 실패 - 막말의 정국을 二分化 역할

- * 조슈번이 개전 직전에 항복을 선언하여 중지됨
- * **영국의 대일 정책의 변화** : 막부의 무능함에 옹변 연합정권의 탄생이 필요하다고 판단
- * 근대화 개명 정책 : 시쓰마번의 사이고 다카모리, 오쿠보 도시미치가 타도막부를 꾀함
- * 프랑스는 로슈 공사를 중심으로 막부에 대한 재정 및 군사 원조를 계속하고 있었음

마. 토막(討幕)운동과 막부의 멸망

- * **삿쇼연합 (薩長聯合)**. 사쓰마번과 조슈번의 하급무사간의 동맹
 - 조슈번에서 혁신파 하급무사들이 번정을 장악, 토막론을 걸고 막부에 무력으로 저항함
 - 막부는 조슈 2차 정벌을 선언하고 강경책으로 선회함 : 공무합체적인 정국운영을 구상
: 사쓰마번이 도사번의 사카모토 료마가 중재하여 사쓰마번과 조슈번이 비밀군사동맹을 맺음
- * 막부는 제2차 조슈정벌에 나섰으나 사쓰마번은 출병을 거부함
: 막부의 조슈정벌은 실패로 돌아가고 막부는 정치적 권위와 군사적 실력면에서 전국 호령의 능력
의 없음이 밝혀짐
- * 결국 궁지에 몰린 막부는 자신의 모든 권한을 천황에게 반환하겠다는 **대정 봉환**까지 제안했지만
저항 세력에 의해 소멸되고 말았다.

6. 대정봉환

- 가. **메이지 천황의 등극** (1867년)
천황의 측근 세력은 반막부적인 젊은 혁신파 공경과 사쓰마와 조슈의 하급무사의 연계로 이어짐

나. **대정봉환의 단행**

- * 1867년 10월 마지막 쇼군 요시노부는 쇼군의 권력을 천황에게 되돌리는 형식으로 **大政奉還**을 단행함 : 천황의 조정은 서남옹변의 토막파와 기맥을 통합
- * 12월 9일 '**왕정복고의 대호령**'을 선언 → 천황친정의 복귀와 쇼군의 영지에 대한 몰수와 삭탈관직
- **5개藩** (사쓰마, 도사, 아키, 오와리, 에치젠)

다. 메이지 유신의 시작 : 서남옹변이 중심이 되어 조정을 이용한 구데타적 상황으로 전개

- * 약 270년간의 막부는 형식상 종언을 고햀함

7. 중앙집권 정부의 성립

- 가. 1868년 성립한 새 정부는 **보신 전쟁**(막부세력과의 1년간의 내전)을 치르면서 일본을 통일하는 데 성공함
곧이어 도쿄를 수도로 정하고 천황을 도쿄에 거주하도록 하였다.

: 공의여론의 존중과 개국화친을 국책의 기본으로 천황친정을 강조함

나. 메이지 정부의 전국 통일

- * **새정부의 삼직** : 총재, 의정, 참여
- * 천황의 5개조 서문 반포 : 민중에게는 '오방의 서문'을 반포.

다. 새 정부는 보다 강력한 중앙집권적 국가를 만들기 위해 과거의 제도를 과감히 개혁하였다.

예를 들어 **판적봉환과 폐번치현** 등의 조치가 그것이었다.

- * 실제 정권은 소수의 혁신 공경과 4개 번의 실력자들이 장악 : 자기 세력만으로 권력의 독점을 제한
→ **번별정권이라는 비난**을 받음

라. 이러한 개혁을 통하여 다이묘, 번주들은 과거의 특권과 지위를 상실하고 말았다. 또 과거의 신분제가 폐지되고 새롭게 **화족, 사족, 평민 신분**이 생겨났다 (**사민평등**)

마. 징병령, 서양식 장비를 갖추어 훈련을 시작(**사족 반란의 절정 시기의 세이난 전쟁에서 사족들을 간단히 제압**)

바. 지조개정과 질료처분

- * **지조개정 (地組改正)**
 - 각 번의 부채를 국가가 떠 맡음 : 토지 제도와 세제 개혁이 개혁정책의 급선무
 - **토지 사유화 정책** : 토지자유매매금지령의 해제, 지권의 발행, 경작권자에게 토지 소유권을 부여
 - 1873년 7월 지조개정조례를 공포하고 1880년까지 정책을 완료함
: 지주와 자작농 등 토지소유자가 등장.
→ 감세를 원하던 **농민들의 반발, 빈부 격차의 증대, 하층 농민의 소작농화 등 사회구조적 문제점**
- * **질료처분 (秩祿處分)**
 - 1876년 화족과 사족에 대한 녹봉의 특권을 폐지함 : 중, 하급 사족의 몰락 → 관리, 경찰관, 교원
 - 평민과 사족의 구분의 불식, 무사계층의 불만 증폭
 - 새 정부는 질료처분을 단행하여 다이묘와 사족들에 대한 연봉의 부담을 일시에 해소하였다.

8. 메이지 초기의 경제정책 : 식산흥업

가. 부국강병정책, 식산흥업정책

- * **식산흥업정책** : **구미의 신산업을 이식하고 상업과 산업의 부흥을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체제**
- * 1870년 설치된 工部省은 철도 부설에 착수하여 개항장과 대도시를 연결
- * **산업의 근대화, 군비의 근대화**, 근대적 우편제도, 근대적 화폐제도. 무역 수지의 개선

나. 홋카이도의 개척

- * 1869년 홋카이도 개척사 설치 : 10년간 소요
- * 아이누족의 동화정책, 불평 사족과 평민의 이민의 장려(둔전병 제도)

9. 문명개화와 복고

가. 학교의 설립

공립의 향학 설립, 이와쿠라 사절단의 학교 교육과 징병제를 중시한 보고서

나. 종교정책

- * 신도의 국교화 : 廢佛毀釋 운동, **이세신궁을 정점으로 국가 신도의 제도가 확립됨**
- * 기독교인 금지 정책 계승 : 우라카미구즈레(浦上崩丸) 사건, **기리스탄 금지의 조항을 삭제**
- * 개신교도 전파되어 외국인 교사의 영향으로 청년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

다. 문명개화 : 서양의 근대 사상과 문명 생활 양식의 유입을 시작

* 국민의 사상 전환

천부 인권사상 주창(나카에 초민), '서양사정', 학문의 권유' 등의 저술과 강연(후쿠자와 유키치)

* 신문. 잡지의 발간 : 메이로쿠샤(明六社)를 설치하여 메이로쿠잡시를 발행

10. 메이지 초기의 대외 관계

가. 국경의 확정

* 오가사와라 제도(小笠原諸島)가 일본령이라는 사실을 재선언 : 1593년 이에아스의 허락, 명명

* 1875년 가라후토 - 지시마 교환조약 : 지시마 열도 전체를 일본령, 가라후토를 러시아령

* 류큐 처분 : 사쓰마번의 지배를 받던 류큐 왕국을 타이완에 출병하여 류큐가 일본령임을 알림
(1874. 타이완 출병) → 1879년 오키나와현을 설치하여 일본의 영토임을 선언

11. 메이지 초기의 조·일 관계

가. 메이지 정부의 대외적 외교 관계

최대의 과제는 막부가 체결한 불평등한 조약 체제의 탈피 : 자국의 위상을 높여야 가능

→ 국가 위상을 높여 근린국가들과의 근대적 조약체결을 희망

나. 조선과의 관계 개선

* 기도 다카요시의 생각 : 정한론에 나타남 → 조선을 일본 열도의 안전보장을 위한 안전판으로 판단
: 러시아 수중에 들어가면 일본의 안전에 위협이 되므로 일본의 영향력 아래 두어야 한다

* 1876년 강화도 조약 체결로 일본의 무력에 의하여 조선이 문호를 개방

→ 청국과 대등한 조약(청·일 수호조규. 1871년)을 체결하여 조선과의 교섭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함

* 조선이 국제 조약 질서에 무지했다는 사실,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게 됨

→ 조약 체결의 자주적 의지가 없었다면 전면전을 하더라도 조약은 체결되지 않았을 것임

12. 임오군란과 갑신정변

가. 임오군란 : 1882년

* 조선은 구미 각국에도 개국하여 청국, 일본, 미국, 러시아의 세력이 이권을 다투게 됨

* 일본으로 금이 유출되어 물가가 폭등하고 재정이 궁핍해짐 : 반일 감정이 고조됨

* 일본 군인을 교관으로 한 별기군의 설치와 급여의 체불 등에 대한 불만으로 구식 군대의 병사들이 반란을 일으켜 일본 영사관을 덮친 사건

* 청나라의 조정으로 양국의 교섭이 성립됨 : 청나라의 정치적 영향력이 강화됨

나. 갑신정변 : 1884년

* 일본의 근대화 정책의 영향을 받은 김옥균 등 개혁파가 조선의 보수파 정권을 타도하고자 함

→ 조선에 주둔한 일본군을 움직였으나 청나라 군대에 패하고 일본으로 망명함

* 청국과 일본 사이에 텐진 조약 체결 : 양국의 군대 철수, 파병 시 사전 통고

다. 1889년 방곡령 사건의 배후에 청국의 영향이 있다고 본 일본 정부가 청국과의 개전을 검토

→ 청·일 간의 군사적 대립이 깊어짐

제 9 장 헌법제정과 청·일 전쟁

1. 서양 문화의 도입 : 군사력 강화를 위한 서양 근대 기술의 수용

- 가. 군사력 강화 : 서양 근대 기술의 수용 → 반사로(대포 주조), 총포 제조, 사쓰마번의 공단지역 건설
- 나. 근대 과학의 학습 : 양학소를 번서조소(藩書調所)로 바꿈 (1856) → 蘭學, 英學을 학습
→ 후에 開城所로 고쳐 어학, 자연과학을 학습 : 의학소와 개성소를 합쳐 도쿄대학을 만들

다. 사상가의 등장

- * 사쿠마 쇼잔 : 서양 과학과 동양의 도덕 사상의 결합을 주장
- * 요코이 쇼난 : 대국을 지양하고 전쟁을 막는 '仁義의 나라'가 되어야 함
- * 계몽 사상가의 등장 : 메이지 유신 이후
 - 메이로쿠사(明六師)를 설치하여 메이로쿠잡시를 발행 : 근대 사상을 소개
→ 후쿠자와 유키치, 니시무라 시게키, 니시 야마나, 모리 아리노리
 - 인권이나 입헌정치를 주장하는 자유민권사상에 눈뜸
→ 나카무라 마사나오(자립의 정신 주장), 가토 히로유키(천부인권설)

2. 자유민권운동의 전개

- 가. 일본은 1870년대 중반에서 1880년대 초반까지 진행된 자유 민권 운동으로 커다란 정치적 변화를 겪었다. 자유 민권 운동은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표방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정한론 논쟁에서 패배하여 정계를 떠난 정치 세력들이 다시 정치에 복귀하기 위해 일으킨 정치 운동의 일환이었다.

- 나. 이들은 납세자인 국민이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민선 의원 설립을 요구하였다.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자유민권운동은 전국으로 번져 나갔다. 더욱이 불평 사족들이 일으킨 반정부 무력적 저항(세이난 전쟁, 1877년, 사이고 다카모리)이 실패로 끝나자 자유민권운동에 대한 기대는 더욱 높아졌다.

- 다. 국회개설의 청원 추진도 정부의 집회조례의 제정으로 억압되고, 정부는 독자적인 헌법을 준비하였다. 메이지 유신의 3대 주역(사이고 다카모리, 기도 다카요시, 오키보 도시미치)의 사망으로 정치권의 중심이 공백 상태가 되었다 : 자유민권운동이 고양되어 정부 내부에 분열이 발생함
→ 선임 참의인 오쿠마 시게노부(정당 정치와 국회 개설의 승인을 주장) 와 이토 히로부미

- 라. 정부는 민권파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하여 점진적인 국회 개설과 독일식 군주 헌법 제정 방침을 정하고 오키마 시게노부를 사직시킴 : 국회개설의 칙유를 내림
→ 메이지 14년의 정변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정부의 주도권을 장악함

- 마. 사의 헌법(私擬憲法) : 국회 개설에 대비하여 각지의 正士나 개인들이 다양한 헌법 초안을 만든 것

바. 자유민권운동의 해체

- * 자유당(기성 동맹 중심, 이타가키)과 입헌개진당(오누마 시게노부)의 결성
- * 이타가키의 정부의 뒷돈 수수와 자유당과 입헌개진당의 상호 비난으로 약화됨
- * 후쿠시마 사건 (1882년) : 후쿠시마 현령이 아이즈의 부흥을 위해 현민에게 가혹한 노역과 부담금을 부과함 → 자유당원과 농민이 반대하며 충돌

- 사. 민권운동의 급진화(오사카 사건)와 정부의 탄압으로 자유민권운동은 쇠퇴하게 됨

구 자유당 오이 겐타로 등이 자금을 모아 조선에 건너가 조선의 보수정권을 전복시키겠다는

계획이 발각, 검거됨. 갑신정변기의 급진개화파와 자유당의 연관성을 시사함

아. 농민의 자유민권운동

- * 곤민당과 차금당의 결성, **지치부(秩父) 사건**(곤진당을 중심으로 지조 경감, 차입금 몇, 징병 반대를 이유로 무장 봉기를 일으킴)
- * 1886년부터 자유민권운동이 다시 고양됨 : 삼대사건 건백운동, 자유당원들의 입헌자유당 결성 등

3. 대일본제국헌법의 제정

가. 결국 1881년 정부도 민중과 여론의 압력에 굴복하여 10년 뒤에 헌법을 제정하고 국회를 설치할 것을 천황의 이름으로 약속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 정부는 국회의 개설에 대비하여 **지방의 자치 제도나 내각 제도 등을 정비**하고, 이토 히로부미를 독일에 파견하여 **일본에 적합한 헌법을 조사**하도록 하였다.

- * 독일의 수상 비스마르크의 조언과 헌법학자의 강의, 군주권이 강한 독일 연방 헌법을 참조하여 헌법과 부속 법령을 기초함 : 헌법 논의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채로 진행되었음
- * 국민의 정치 참여에 대한 견제 조치
 - 1884년 **화족령** : 황실을 지키는 특별한 신분으로 후에 귀족원을 구성하게 됨
 - 1885년 **태정관제를 폐지**함 : 내각 총리대신(수상)과 국무대신으로 조직된 내각 제도를 도입함
- * 천황가의 일본 최대 자산가 : 일본은행의 주식, 국유지 등 구가의 자산을 황실의 명의로 등기

다. **지방자치제의 성립** : 중앙정부의 강력한 통제하에 지방의회는 지방 유지들의 사교장

- * **시제와 시정존제, 부현제와 군제**를 제정 : 완전한 지방자치제는 아니었다
- * **의원의 선거권** : 지방의 유력자와 대지주를 기초로 함

라. 자유민권운동 측에서도 자유당과 입헌개진당을 만들어 헌법 체제에 대응하였으나 메이지 정부는 헌법과 제도의 개혁에 민간의 의견을 일절 수용하지 않았다.

마. 이처럼 정부 주도하에 진행되어 헌법은 1889년 2월 11일 **대일본 제국 헌법**으로서 발표되었다.

이 헌법은 주권자인 천황이 만들어 국민에게 내려 준다고 하는 이른바 **흠정헌법(欽定憲法)**이었다. 일본은 이 헌법에 근거하여 1890년 귀족원과 중의원으로 이루어진 국회를 개설하였다.

- * 왕위의 계승, 즉위 등 **황실에 관한 것은 皇室典範** (1889년 제정)으로 정함 : 천황의 일부일처제, 장자계승의 원칙 등이 제도적으로 정비되어 **근대적 천황제의 기본**이 마련
- * **절대적인 군주제와 입헌주의적 군주제가 혼용** : 천황은 **군통수권, 선전포고, 조약비준 등의 외교대권, 정부조직법인 관제제정권** 등의 막강한 권한
- * **긴급칙령권**은 법률과 같은 권한으로 의회없이 국가의 법률적 기능이 기동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 → 정부가 얼마든지 **천황의 권위나 명의를 도용하여 합헌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의미함

바. 일본은 이 헌법에 근거하여 1890년 **귀족원과 중의원으로 이루어진 국회를 개설**하였다.

- * **제국의회** : 천황이 임명하는 귀족원과 국민 공선에 의한 중의원으로 구성
 - 중의원의 **입법권의 행사**는 귀족원에 의해 대부분 제한 당함. **예산심의권**은 중의원의 권한으로 정부와 중의원의 대립구도가 점차 커지게 됨

사. 사법권은 행정, 입법으로 독립되어 있었으나 천황에 속해 있었다

: 행정부의 권한은 의회보다 컸고 국무대신은 천황에 대해서만 책임을 짐

아. 국민은 **천황의 臣民**이고 납세와 병역의 의무를 지지만 국민의 권리는 법률로 제한함

자. 언론이나 정치 활동, 사회 운동 등을 제한하는 법령

4. 조약 개정의 교섭

가. 조약 개정의 외교

메이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외교 문제는 막말에 체결한 불평등 조약을 평등한 조약으로 개정하는 문제임 : 관세자주권의 획득 (稅權 회복)과 영사재판권의 철폐 (法權 회복)

나. 조약 개정의 실패와 성공

- * 관세자 주권 획득은 미국과의 교섭으로 동의를 얻었지만 영국, 독일의 반대로 무산됨
- * 외국에 대해서 일본 국내의 내지통상권을 조건으로 영사재판권의 철폐를 동의 받음
- * 고무라 주타로 외상 (1911년)
조약 만기 교섭에서 완전한 관세자 주권회복에 성공 : 구미 열강과 대등한 조약 관계

5. 청·일 전쟁

가. 일본은 국가 목표인 '부국강병'을 달성하는 방편으로 대륙으로의 팽창을 추구했다.

: 따라서 일본은 대륙 침략의 발판이 되는 조선을 놓고 점차 청국과 갈등의 도를 더해 갔다.

→ 결국 일본은 조선에서 일어난 동학농민운동을 빌미로 군대를 파견하고 청국과의 전쟁에 돌입함

나. 청·일 전쟁의 발발

- * 갑오농민운동의 발발 (1894년 5월. 세금 감면과 일본 배척을 요구하는 동학교도를 중심으로 대규모 농민봉기)
- * 청국 군대와 일본군이 대항 출병을 단행함 : 조선의 농민군은 양국의 개입을 우려, 정부와 화해함
- * 일본군은 단독으로 조선 정부에 내정개혁의 단행을 최후 통첩함
- * 조선 정부가 거절하자 강제로 내정개혁 단행을 착수함. 청국의 수송선을 공격하여 전쟁이 발발
- * 전쟁 수행을 위해 거국 일치적인 기민성 : 거액의 전쟁 예산과 법률안을 만장일치로 승인
- * 大本營을 도쿄에서 히로시마로 이동 : 황해 해전의 승리, 청국 북양함대의 근거지를 점령함

다. 시모노세키 조약과 삼국 간섭

- * 시모노세키 조약 성립 (1895년 4월)
새로운 청, 일 통상항해조약 체결, 사스, 충칭, 쑤저우, 항저우의 개시와 개항, 치외법권의 승인
- * 청일 전쟁의 효과
 - 아시아 최초의 식민지 영유 국가로 등장
 - 전쟁비용을 능가하는 전쟁 보상금의 획득 : 군수 산업의 근대화, 산업 혁명의 자금 활용
 - 청국의 위상을 낮추어 중국 분할이 가속화 됨
- * 러시아와의 전쟁 준비
 - 러시아는 독일, 프랑스와 함께 청국에 반환하도록 강하게 압력을 가함 (삼국의 간섭)
 - 랴오둥 반도를 반환하고 약 4천5백만 엔의 배상금 : 러시아와의 전쟁을 위한 군비 확장을 추진

라. 명성황후 시해사건

- * 1895년 10월 반일 정군을 수립한 명성황후가 일본인에게 시해 당함 → 일본에 대한 감정이 악화됨
- * 고종은 일본이 두려워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여 러시아의 보호를 받음 (俄館播遷)

마. 타이완의 식민지화

가. 타이완 총독부 설치

나. 식민 정책 실시

[심화학습]

① 사족의 반란 : 세이난 전쟁(西南戰爭)

1. 사이고 다카모리 (정한론 논쟁에서 패하여 귀향)을 우두머리로 메이지 정부의 급속한 서구화 정책으로 인한 무사계급의 지위 상실에 불평 사족들이 나타남
2. 1877년 일어난 사족반란으로 전투는 주로 규슈에서 벌어짐 : 8개월 간의 전투로 **세이난 전쟁**이라고도 함 : 백중세의 전투는 구마모토성 전투에서 정부군이 승리하며 위기를 넘김
→ 평민으로 구성된 군대가 사족의 군대를 이겼다는 사실이 서구화 정책의 정당화 결과로 나타남
3. 패배한 사복들은 중국이나 조선으로 진출하여 대륙낭인이 됨 : 일본의 대륙 침략의 첨병이 됨

① 군인칙유와 군비강화

1. 군인칙유는 1882년 반포되어 **충정, 예의, 무용, 신의, 검소**의 다섯 가지 덕목을 강조함
상관의 명령의 천황의 명령이라는 점을 강조함, 군의 통수권은 제도적으로 내각으로부터 독립됨
2. 1881년 육군은 6개 사단과 근위사단을 편성, 기병 신설, 수송 부대인 치중병을 확충하여 해외 작전 수행능력을 갖추. 징병령을 개정하여 병역의무를 강화함. 청일전쟁 후에는 세계 일류 해군으로 성장

① 교육칙어와 학교

1. 1890년 메이지 헌법에 없었던 교육에 관한 규정으로 '교육에 관한 칙어'가 반포되었다.
충효의 길이 국체의 精華이고 교육의 근원이라고 정의하며 학교 교육의 기본이 되고 천황을 숭상 하는 습관을 기르는데 일조하게 됨
2. 1903년 국정교과서가 사용되고 교육을 통한 국가의 통제가 강화됨. 또한 제국대학은 국가의 요구에 응해 연구와 교육을 행하고 국가 체제를 지탱하는 관리, 기술자의 양성기관으로서 큰 역할을 함

① 오쓰(大津)사건

1. 일본을 방문하던 러시아 황태자가 1891년 5월 사가현 오쓰에서 경비를 하던 일본 순사로부터 습격을 당해 부상을 입은 사건임.
2. 러시아의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요구를 대신원장이 외국의 황족을 일본의 황족으로 간주하여 법률 해석을 할 수 없다고 거부하고, 일반의 모수죄를 적용하여 무기징역에 처함.
3. 치외법권 교섭에 이어 일본 사법부의 독립을 유지한 판례로 칭송을 받음. 그러나 범인이 국민적인 이지매를 당하면서 일가가 멸절하게 되어 일본 사회의 다른 이면을 보게 되었음

① 명성황후 시해사건

1. 조선에서의 내정개혁(갑오경장)을 주도했던 일본의 이노우에 공사가 삼국간섭에 의해 일본의 위상이 저하되어 영향력 행사가 어려워지고 1895년 친러파정권이 성립되었다
2. 러시아가 일본과의 무력충돌을 일으킬 의향이 없음을 확인하고 대원군을 이용해 친일파정권을 부활시키기 위한 궁중쿠데타를 획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3. 일본 정부의 지시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사건의 주범은 일본의 군인, 외무성과 경찰, 외교관, 우익인 현양사 계열의 조선 낭인을 모두 지휘할 수 있었던 인물인 미우라 고로라는 점이다
4. 친일 정권 부활을 위한 궁중 쿠데타가 중요 과제이고 이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종 및 조선

왕실에게 공포심을 심어 주는 방식으로 극단적인 수단이 채택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제 10 장. 러. 일 전쟁과 한국 강점

1. 러. 일 전쟁

가. 중국의 분할과 일본의 선택

- * **청·일 전쟁**으로 종이호랑이 신세가 된 중국은 세계열강의 각축장이 되어 가고 있었다.
- * 랴오둥 반도를 반납하게된 일본은 조선에서의 러시아와의 세력 관계를 고려하여 협조노선을 택함
- * 이러한 추세를 가속화시킨 사건이 1900년 의화단 세력에 의해 베이징이 포위된 사건이었다.
: 부청멸망을 외치는 의화단 사건으로 구미 열강과 선전포고를 하게 됨
- * 이에 대하여 서구 열강은 8개국 연합군을 편성하여 베이징에 포위된 외교관들을 구출하였는데,
: 연합군에 일본도 가담하여 국제 무대에서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음
- * 하지만 의화단 사건은 혼란의 시작이었을 뿐이었다. 곧 이어 러시아는 만주를 점령하였고,
이에 당황한 일본은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고 싶어 하는 영국을 끌어들여 영·일 동맹을 맺었다.
: 러시아의 남하 정책 저지 목적 공유, 러일전쟁시 영국은 중립 후 제3국이 러시아 편에 서면 일본 측에 참전하기로 함

나. 러. 일 전쟁의 과정

- * 이로써 일본과 러시아의 대립 구도는 더욱 선명하여졌다. 결국 서로의 양보 없이 진행된 러·일 협상(만주와 한국 문제 해결을 위한 러시아와의 협상)은 무위로 끝남
- * 일본은 해군의 뤼순 공격과 육군의 인천상륙을 통한 서울 등 주요 지역을 무력 점령함
: 한국은 무력 강점을 당하고 실질적으로 일본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됨
- * **1904년 2월 러·일 전쟁**이 일어나 일본은 고전 끝에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 러시아 내의 반전 운동 등으로 충분히 전력을 발휘하지 못함
- * **러일전쟁의 경과** : 20세기 전쟁사에서 전, 후방이 없는 총력전의 출발점
- 뤼순 요새에 대한 공략 : 11개월 만에 3개 사단 병력의 손실, 태평양 함대 제압
- 인천항의 러시아 한 대 기습 후 선전포고 (1904년 2월)
- 유럽에서 온 발틱함대를 전멸시킴 (일본해 해전, 1905년 5월)

다. 전시하의 국민 생활

- * 개전과 함께 간선 철도의 군사 수송에 이용, 외항 선박의 수출입 수송 정지, 국내 상품 유통의 막힘
- * 개별 소비세의 증세와 신설되어 도시 중, 하민층의 민중은 심한 생활고를 겪음
- * 군수품의 영향으로 생필품의 가격이 폭등하고, 농촌에서는 노동력과 비료의 부족으로 농업 생산이 곤란해짐 : 군대 소집, 군마의 사료 공출
- * 청일 전쟁과는 다른 엄청난 소모전 양상

라. 포츠머스 강화 조약 (1905년 9월)

- * 하지만 전쟁 물자가 바닥난 일본으로서는 미국의 중재를 요청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렇게 해서 배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포츠머스 강화 조약**을 맺어야만 했다.
① 러시아는 한국에 대한 일본의 지도, 보호, 감리권을 인정
② 뤼순, 다렌의 조차권과 장춘 이암의 남만주 철도와 그 부속된 권리를 양도
③ 북위 50도 이하의 사할린과 부속 도서를 할양, 연해주와 캄차카에서의 어업권을 승인
- * 그러나 언론의 일방적인 보도로 일본이 완벽하게 승리하였다고 믿고 있던 대중은, 일본이 배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을 알자 국가에 배신당했다는 억울함을 폭발시키고 말았다.
: 이른바 히비야 공원의 폭동이 일어났던 것이다.

2. 러. 일 전쟁 후의 일본

가. 게이엔(桂元) 시대 (1906~1912)

- * 가쓰라(桂)다로 (번벌, 관료세력, 육군)와 사이온지 긴모치 (중의원 제1당 입헌 정우회 총재)가 서로 내각을 교대로 구성하는 시대 : 정권의 핵심은 야마가타 아리토모를 정점으로 한 원로들

- * 전쟁의 승리를 배경으로 육군, 해군까지 정치세력화

나. 전쟁 후의 정치

- * 1906년 제1차 사이온지(西園寺) 내각 성립 : 번벌 세력과 갈등
 - 1912년 7월 메이지 천황이 사망 : 다이쇼(大正)로 개원함
 - 중국에서는 신해혁명으로 중화민국이 성립함
 - 자유주의 성향의 사이온지 내각이 성립 : 최초의 합법적인 사회주의 정당(일본사회당) 출현
 - 사회주의 세력을 극히 싫어하는 번벌세력과의 대립으로 총사퇴함
- * 1908년 제2차 가쓰라 내각 성립
 - 대역사건을 날조하여 사회주의자를 대량 검거
 - 공장법을 제정함 : 14명 이하 공장에는 적용하지 않고 1916년 가서야 시행됨
- * 1911년 정우회를 배경으로 제2차 사이온지 내각 성립
 - : 육군은 조선에 배치할 2개 사단의 증설을 요구 → 육군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아 육군대신 사퇴
- * 제3차 가쓰라 내각의 성립 : 천황의 조칙을 교묘히 이용하여 자신의 내각을 성사

다. 다이쇼 정변과 제1차 호헌 운동

- * 제3차 가쓰라 내각이 구성되자 국민의 분노가 폭발함 : 자신이 수상이 되고자 함
- * 입헌 국민당과 임헌 정우회를 중심으로 '별족 타파, 헌정 옹호'를 외치는 제1차 헌정옹호운동
 - 확대 : 내각 구성 53일 만에 가쓰라 내각이 사퇴함 (다이쇼 정변)
- * 정우회(야마모토 곤베에) 내각 구성 : 1914년 군함 구입비 부정사건(지멘스 사건)으로 사퇴
- * 원로와 군부는 조선에 배치할 2개 사단 증설안을 실현
 - : 노정치가 오쿠마 시게노부에게 내각의 구성을 맡김 → 총선에서 압승하여 해군확장안도 가결시킴

3. 대한제국의 몰락

가. 한국의 식민지화 과정

- * 러일전쟁 승리 후 한국을 일본의 보호국으로 삼음 : 미국, 영국과 동맹 개정을 통해 승인을 얻음
 - : 미국과 가쓰라. 태프트 조약, 영국과 영일동맹 개정
- * 일본은 러일 전쟁을 통하여 대외적으로는 한국을 식민지로 확보하고 국제 사회에서 서양 열강과 대등한 지위를 얻게 되었다.
- * 1904년 2월 러일전쟁의 발발과 동시에 한일의정서를 강요 : 전쟁에 필요한 인적, 물적 징발 목적
 - 의정서 자체가 국제법 위반임
- * 1904년 8월에 제1차 한일협약이 체결 : 일본인 재정보문과 미국인 외교 고문 (일본이 장악)
- * 1905년 11월 제2차 한일협약 : 乙巳勒約, 을사조약 → 을사조약
 -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고 내정과 외교를 관할하는 한국통감부를 설치 (1906년. 이토 히로부미)
 - 고종에게 협약의 승낙을 강압하고, 포츠머스 강화조약이 체결되자 즉각 강행함

나. 항일 투쟁의 전개와 한국 병합

- * 1907년 헤이그 밀사사건 : 고종은 보호조약 자체가 무효라고 저항을 계속하고, 헤이그 밀사 사건 이 불거짐 → 일본은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순종황제를 즉위시킴
- * 제3차 한일협약을 강제하여 한국 정부의 내정권마저 탈취함 → 한국군이 해산됨
- * 민비 시해 사건 이후 의병 투쟁, 애국계몽운동을 일으킴 : 항일운동을 탄압하고 지역을 초토화
- * 한국 병합 : 일본 정부는 1910년 7월에 한국 병합을 각의에서 결정하여 8월 식민지화함
 - 한국 정부를 없애고 조선총독부를 설치 : 한국을 조선으로 부르기로 함
 - 초대 총독으로 육군대신인 데라우치 마사타네를 임명함 : 헌병 경찰제도에 의한 무단 정치 실시

다. 일본의 만주 지배 : 만주의 배타적 이권 확보

- * 1906년 관동도독부를 귀순에 설치,
- * 남만주철도주식회사 설립 : 만주 지배의 거점

- * 관동군 설치, 러일 협약을 통하여 만주와 몽고에 대한 양국의 세력범위를 결정
: 만주로 진출하려던 미국의 의도가 좌절 → 미국과 일본의 관계가 급속히 냉각

제 11 장. 일본 자본주의의 성립

1. 마쓰카타의 긴축 재정

- 가. 메이지 초부터 부국강병과 서구화를 지향한 일본은 서양의 자본주의 도입에도 매우 적극적이었다.
- 나. 초기의 인플레이션과 물가의 급등을 마쓰카타 마사요시의 긴축 재정정책으로 수습하고, 증세와 정부 사업의 처분을 통해 재정의 안정을 도모하였다.
 - * 지폐 정리 정책, 군비 확장을 위한 대규모 증세 정책,
 - * 적자 관영 공장과 광산을 민간에 불하하여 불필요한 세출을 억제함

- 다.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만들어지고(1882년), 은본위 화폐제도가 확립된 것도 이 때였다.
 - * 지폐 발행을 통일, 은본위제에 의한 정화 태환제, 기존 민간의 국립은행을 보통은행으로 전환
 - * 화폐 통화량을 급속히 축소하여, 물가가 하락하며 경제 불황이 발생함
 : 마쓰카타 디플레 → 자본주의 발전 과정, 계층 분화 현상, 기생 지주제와 도시 빈민 형성과정

2. 마쓰카타 재정 정책의 영향

- 가. 마쓰카타 마사요시의 긴축정책으로 농민층은 분해되었고, 농촌을 떠난 농민이 도시에서 저임금 노동자층을 형성하기도 하였다.
 - * 소작비의 비율 : 35.5%(1883년) → 40.1%(1892년)
 - * 기생지주의 지배력 증대 : 하락한 전답 매입, 고리대금으로 지주가 되어 소작료 수입으로 생활함

- 나. 그 결과 일본에서는 자본의 원시적 축적에 필요한 값싼 노동력을 얻을 수 있었다.

3. 산업혁명의 진행

- 가. 방직업 : 대규모 면사 방직 공장인 오사카 방직공장이 설립됨 (1883년, 화족과 거대 상인 자금)
 - * 면사 생산량이 수입량을 초과하고 일본을 대표하는 산업으로 성장함

- 나. 철 도 : 교통 분야에서는 철도의 발달이 눈에 띄었다 → 군사적 측면
 - * 1889년 관영 철도로 일본의 중심선인 도카이도선이 전 구간 개통되었고,
 - * 민간에 의한 사철도 발달하여, 1889년에는 민영 철도가 관영 철도를 앞지르게 되었다.

- 다. 배상금의 사용 : 청일전쟁에서 받은 배상금 銀 약 3억5천만엔을 금으로 바꿈
 - * 태환을 준비한 후 1897년 금본위제를 실시하여 구미 제국과 경제적 교역에서 동일한 기반을 갖추
 - * 러일전쟁에 대비하여 군비 확장에 사용함
: 전시 수송에 대비하여 법 제정하여 민간 조선업의 대형 선박화, 고속화 장려
 - * 포병공장의 확장과 야하타 제철소 설립 자금으로 사용함

- 라. 대량 생산체제의 확립
 - * 증기기관, 기계작업으로 대체하여 기계제 공업이 확립됨
 - * 대규모 공장에 의한 대규모 생산으로 산업 자본 성립, 자본가 계층 발생

- 마. 사회적 기반을 바탕으로 경공업이 방직업을 중심으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였고, 청·일 전쟁 후에는 뒤쳐진 중공업을 일으키기 위하여 관영 제철소인 야하타 제철소를 설립하였다.

4. 기생 지주제의 성립 : 지주로의 토지 집중

- 가. 수입과 공업에 돌려 현금 수입의 기회가 축소, 토지를 포기하는 농민이 증가

나. 기생 지주제 확립 : 도시의 식량 수요의 증가, 교통의 발달로 쌀의 전국적인 유통이 원활
→ 농촌의 지배 세력이 되어 이익을 농업 외에 투자함 : 채권과 주식에 투자되어 자본주의와 연계

5. 사회문제와 노동운동

가. 소작농은 생활이 어려워져 어린 자식을 도시의 공장으로 보내거나 부업을 하면서 생활을 영위함

나. 농촌의 빈곤층이 도시로 유입되어 도시의 하층 사회를 형성함 : 인력거 인부 등

다. 임금 노동자의 증가

- *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 산업혁명기에는 공장 노동자의 파업투쟁이 시작됨
- * 노동조합 기성회 결성 (1897년) : 자본가에 대항 → 1900년 치안경찰법 제정으로 노동운동 단속
- * 1901년 사회민주당이 창당되었지만 곧 해산됨

라. 산업혁명과 자본주의 발달은 실업과 저임금, 환경 오염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켰다.

아시오 동광의 광독 사건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하겠다.

6. 재벌의 형성 : 러일전쟁 후 일본자본주의는 중공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발전을 보임

가. 중공업 : 관영 야하타 제철소, 민간의 일본제철소 설립

나. 기계공업 : 세계 수준의 조선 기술, 공작 기계(수입 의존)

다. 경공업 : 섬유 산업이 중심 → 견사, 견포, 생사, 견직물 등이 수출품의 46% 점유

- * 대일본방직연합회 같은 카르텔이 조성됨

라. 제조업, 포경업, 화학비료공업 등에서는 카르텔보다 강력한 트러스트가 성립

마. 정부의 보호 속에 발전한 政商이 생산과 자본의 집중을 증가시켜 자본가로 성장함

: 미쓰이, 미쓰비시, 스미토모, 야스다 등이 재벌로 일본 경제를 지배하게 됨 : 콘체른 형태

마. 철도국유법(1906년) 제정으로 전국 철도의 91%가 국유화 : 민간회사 주식의 2배에 가까운 고액 매입

7. 발전소와 화학 공업

가. 발전소 : 1915년 후쿠시마현의 이와시로 발전소에서 도쿄까지 초고압 장거리 송전이 성공한 것을 계기로 공업에 사용하는 동력이 전기로 전환됨 : 화력 발전에서 수력 발전으로 전환

나. 화학공업 : 제1차 세계대전으로 화학 제품의 수입이 중단되어 화학공업이 급속히 발달함

- * 화학비료의 수출과 국내 농업에 사용
- * 공업 총생산액이 농업생산액을 넘어 아시아 제일의 공업국이 됨 (1918년)

8. 근대 사상과 종교

가. 자유민권운동의 전개로 구미의 철학, 문학, 법학, 예술, 과학기술 등이 유입됨

- * 두구치 우기치 : 동경경제잡지, 자유주의 경제 주장,
- * 나카네 초민 : 루소의 '사회계약론' 번역
- * 민권론이 우세한 가운데 국권론이 등장함
 - 도쿠토미 소호 : 民友社 설립 (잡지 발간), 잡지 "고쿠민노토모(國民之友) 발간
 - 이야케 세쓰레이, 구가 가쓰난 : 세이코사(正教社)그룹 → '일본인'에서 근대적 민족주의를 주장함
- * 청일전쟁의 승리로 일본주의를 주장(토쿠토미 소호), 러일전쟁까지 국가주의가 사상의 주류

나. 종교

- * 신도의 국교화 추진 실패, 불교의 회복,
- * 메이지 헌법에서 기독교도 신교의 인정으로 포교에 힘을 쏟음
- * 인도주의의 입장에서 사회복지와 폐창운동 전개 → 교육활동에도 힘을 쏟음

9. 교육의 보급과 학문의 발달

가. 교육의 보급

- * 학제의 보급(1872년), 교육령 공포(1879년), 소학교 보급 노력으로 의무교육 취학을 상승

- * 1886년 학교령 공포, 1907년 소학교 6년간 의무교육제 시행
- * '교육에 관한 칙어'로 중군애국이 교육의 기본으로 강조됨. 국정교과서 제정

나. 학교의 설립

- * 게이오의숙, 도시샤 영어학교, 도쿄 전문학교(오쿠마 시게노부), 와세다 대학이 설립되어 관립학교와 다른 학풍이 일어남
- * 여고에도 현모양처 교육을 중심으로 정부가 여자사범대학교 등 여학교를 세움
- * 사립학교로 일본여대, 여자영학숙(後의 쓰다주쿠 여대) 등이 생김

다. 인문과학, 사회과학

- * 영국, 미국식의 자유주의 경향에서 메이지 헌법 이후 독일식 국가주의적 학문이 중심이 됨
- * 일본사, 일본 문학에서 서양식 연구방법 도입
- * 과학 기술, 의학 분야에서는 외국인 교사의 지도로 근대식 서양기술이 도입됨

라. 공업 기술 분야 : 백열전구, 무선 전화, 자동차의 수입, 전기사업이 전개

10. 메이지 문화의 특징

서구 자본주의의 유입과 함께 서구 문화도 일본에 들어와, 메이지 시대는 독특한 메이지 문화를 형성하였다.

- ① 일본 문화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각 분야에 걸쳐서 급속히 서양의 근대 문화를 수용하였기 때문에 서구 문화에 대한 표면적이고 피상적인 이해가 많았다.
- ② 근대 문화의 특질로서 과학적 정신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 ③ 동시에 학문과 예술이 정치, 도덕, 종교로부터 독립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 ④ 반면에 서양 문화에 대한 반발로 국수주의적인 일본주의가 강하게 일어난 것도 메이지 문화의 특징이었다.

11. 저널리즘과 근대 문학

가. 저널리즘

- * 자유민권운동과 아시아 문제, 조약 개정 문제 등이 부각됨
- * 전국적 상업신문이 창간 : 아사히 신문, 마이니치 신문
- * 大新聞 (정치적 주장을 발표하는 것이 중심)과 小新聞 (서민의 오락 제공. 대중 문예 발달에 기여)

나. 문학

- * 권선징악적인 게사쿠 문학이 부활, 정치, 외교 문제와 관련된 정치 소설
- * 사실소설 (소설의 진수. 쓰보우치 쇼요), 연문일치제 (뚝구름. 후타베타이 시메이)
- * 문단의 주류는 오자키 코요 (곤지키 야샤(金色夜叉)), 청일전쟁 이후에는 로망주의 문학이 성행
- * 소 설 : 히구치 이치요, 모리 오가이
- * 신체시(시마자키 도손), 단가(요사노 아키코)
- * 하이쿠의 혁신을 이룬 마사오카 시키 드이 주목을 받음
- * 러일전쟁 전후에는 자연주의 문단 : 지식인의 내면생활을 국가 사회와의 관계에서 묘사함
→ 나쓰메 소세키의 작품
- * 사회적 보수와 자아의 문제에 관심을 둔 문학이 나타남
- * 잡지 출간 : 시라카바(白晡.무샤노코지 사네야쓰), 세이토(靑踏. 히라쓰카라이초)

11. 미술, 예능, 과학기술

가. 도쿄미술학교 : 1887년 오카쿠라 덴신 → 사직 후 일본미술원을 결성
: 요코하마 다이칸(大觀), 낭만주의 화풍을 만듦

나. 서양화 : 프랑스 밝은 화풍 (백마회 조직)

→ 다카하시 유이치, 아사이 추, 구로다 세이키, 아오키 시게루

다. 조 각 : 다카무라 고운(전통 조각 분야), 오기하라 모리에(로댕)

라. 서양음악 : 도쿄음악학교 설치(1887년), 창가 교육, 군가의 유행(다키 렌타로).

마. 전통 음악의 애호 : 엔카, 나니와부시

제 12 장. 제1차 세계 대전과 다이쇼 데모크라시

1.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

가. 러일전쟁 후 일본은 한국을 식민지화함으로써 대륙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국 진출을 꾀하던 미국의 관심을 일본이 외면함으로써 미·일 관계가 냉각되기도 하였다.

나. 일본의 중국에 대한 침략적 태도는 쑨원을 중심으로 신해혁명이 일어났을 때에도 꺾이지만 제1차 세계대전 시기에도 잘 나타난다

다. 유럽의 동맹 체제 → 동맹국과 협상국 간의 분쟁이 종종 발생함

* 20세기 초 유럽은 신흥 독일 제국이 급속히 발전함 : 영국과 대립하게 됨

→ 독일, 오스트리아 · 헝가리 제국, 이탈리아가 3국 동맹을 맺음

* 영국은 고립 정책을 버리고 프랑스, 러시아와 3국 협상이 성립됨

* 독일은 오스트리아와 군사적 협력을 강화 : 모로코 문제로 독일과 프랑스의 대립이 첨예화

라. 사라예보 사건

* 1914년 6월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처가 보스니아의 수도 사라예보를 방문 중 암살당하는 사건

*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선전포고, 동맹국과 협상국 간의 상호 선전포고하는 사태가 발생

* 영국은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고 일본의 참전을 요청함 : 오쿠마 내각이 독일에 선전포고함

: 영국은 아시아에 머물고 있는 독일의 무장 상선을 격파하는 정도의 참전을 요구함

2. 일본의 참전과 중국에 대한 압박

가. 1914년 6월 사라예보의 총성이 전 유럽을 전쟁의 와중으로 몰아넣었을 때, 유럽에서 멀리 떨어진 동아시아에는 갑작스런 힘의 공백이 생겨났다.

나. 이것을 절호의 기회로 여긴 일본은 영국조차 원치 않았던 전면 참전을 독일에 선언하였다.

* 유럽의 전투에는 참전하지 않고 생색만 내는 정도에 머물렀음

* 일본은 태평양에 떠 있는 많은 섬들을 자신의 수중에 장악하였다.

: 독일의 세력권인 산둥 반도, 자오저우만을 공격, 칭타오를 점령, 독일령 남양제도를 점령함

다. 중국에 대한 압박

* 중화민국 임시정부 탄생 : 1911년 신해혁명을 통해 清朝를 멸망시키고 쑨원을 임시 대통령으로 함

* 그 후 북방 군벌의 거두인 위안스카이가 혁명파를 누르고 대통령이 되어 정권을 잡음

: 구미 열강과 일본 정부는 위안스카이 정권에 차관 형태로 자금원조와 정권을 지지함

* 남만주에 대한 권익의 기한을 대폭 연장하기 위하여 위안스카이 정부에 21개조 요구를 강요함

: 일본인 재정 고문 초빙, 일본 무기 수입, 양쯔강 철도 부설권

* 중국 국민의 반감이 강하였고 5월 9일을 국치일로 함 : 주권의 침해

: 후임 된치루이 정권에도 차관을 부여하여 영향력의 확대를 꾀함

라. 일본에 대한 구미 열강의 경계심

* 미국과 협정을 체결하여 중국에 대한 양국의 이해 조정을 꾀함

* 일본이 중국의 영토 보전, 만주의 문화 개방을 약속하는 대신, 일본의 중국 내 특수 권익을 인정

: (이시이, 램싱 협약 . 1907년)

3. 제1차 세계대전 경기의 호황과 일본

가. 大戰경기의 호황

- * 러일 전쟁 이후로 누적된 경제 불황과 재정 위기를 한꺼번에 해소
- * 면직물 시장에서 아시아 시장을 석권, 미국 시장에 생사 수출이 급증
- * 세계 3위의 해운 국가로 부상, 철강업, 화학공업 분야의 눈부신 성장, 중화학 공업의 비중 증가
- * 자본주의 발전에 비하여 물가의 급등은 서민 경제를 압박함, 농촌 경제도 정체를 면하지 못함

나.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

- * 다이쇼 초기 민중운동의 고양으로 1916년에 요시노 사쿠조는 민본주의를 제창함
→ 보통선거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는 정치의 핵심 이슈로 등장
- * 조선총독 데라우치가 후계 수상이 됨 : 강경파 군인으로 정당의 정치 관여를 극단적으로 회피

4. 파리 강화 회의와 베르사유 체제의 성립

가. 연합국 측의 승전 : 영국,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 * 독일의 식민지 등의 포기와 전쟁 배상금 부과
- * 국제연맹의 창설 : 미국이 가맹하지 않아 반쪽짜리 기구가 됨
- * 유럽에서는 영국, 프랑스를 중심으로 세력 균형을 꾀하는 베르사유 체제가 성립함

나. 일본의 전쟁 권익 : 식민지의 증가 → 파리 강화 회의(1919년)

산둥 반도의 독일 권익을 계승, 적도 이북의 남양군도를 위임 통치

5. 3. 1운동과 5. 4운동

가. 1919년 파리 강화 회의가 열리고 민족자결주의가 주창되자, 한국에서는 3·1 운동이 일어나고, 곧 이어 중국에서는 5.4 운동이 일어나, 일본에 대한 아시아 민족의 저항은 더욱 거세졌다.

나. 3·1 운동 : 1919년 3월 1일

- * 국유지 증가와 동양척식회사의 소작인이 된 농민과 이주 조선인은 독립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가짐
- * 러시아 혁명과 민족 자결의 움직임, 데라우치 내각의 붕괴 속에 독립을 요구하는 운동이 전파됨

다. 5·4 운동 : 1919년 5월 4일

- * 산둥성의 독일 권익이 일본에 양도된 강화 회의의 결정에 대한 베이징의 대학생들이 집회를 열
- * 상하이에서는 파업(학생), 파시(상점), 파공(노동자)의 삼파 투쟁의 고양
→ 베이징 정부는 체포 학생의 석방, 21개조 조약을 조인한 정부 고관을 파면
- * 세계대전 중 민족 산업의 발전으로 국내 시장이 확대되고 일본 제품의 배척
→ 민족 전체의 항일 운동을 고조시킴

라. 인도의 간디에 의한 비폭력, 불복종 운동 등의 자극을 받아 일어난 운동

3. 워싱턴 체제의 성립과 협조 외교

가. 하지만 파리 강화 회의에서 일본이 차지한 대부분의 권익들은 그대로 인정되었고, 워싱턴 회의에서도 일본은 당당하게 세계 5대 강국의 위치를 확고히 하였다.

나. 워싱턴 회의 : 1921년 → 워싱턴 체제

- * 세계 대전으로 국제 사회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것이 미국임
- * 태평양 질서의 재편과 중국 시장에 대한 열강들의 경쟁 제한을 목적으로 함
→ 해군 건함 경쟁을 제한하여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팽창을 저지하기 위함
- * 일본은 미국과의 협조 체제에 동의하여 국제적 고립을 회피하는 정책을 택함

- *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의 '4개국 조약'이 체결됨 : 태평양의 영토 보전과 안전 보장의 결정
→ 영·일 동맹의 폐기
- * 중국과 이해 관계를 가지는 9개국 조약 체결 (중국의 주권, 영토보전, 독립 존중, 시장 문호 개방)
→ 산둥 반도를 중국에 반환
- *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 5개국이 해군 군축조약이 체결됨

다. 일본 국내 정세

- * 1922년부터 대영, 미 협조 외교노선을 기초로 가토 다카야키 내각, 시대하라 외상체제
- * 1920년 전반 일본은 워싱턴 체제하에서 협조 외교를 전개함으로써 평화로운 국제 질서 유지에 동조했다.

4. 시베리아 출병과 쌀 소동 : 정당 정치의 대두

가. 시베리아 출병 : 1918년 구미 열강이 러시아 혁명을 좌절시키기 위한 반혁명세력을 지원하기 위한 전쟁

- * 러시아 혁명으로 소비에트 정권(노동자, 농민, 병사 협의회)이 성립 :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
: 러일 협상체제의 소멸 위기로 북만주와 연해주까지 세력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맞섬
- * 미국의 제안으로 출병한 일본은 만주 북부와 시베리아로 세력을 확대할 좋은 기회라고 판단함
- * 1차 세계대전의 종전으로 열강들은 간섭 전쟁에서 철병함
→ 일본은 1922년까지 군대를 주둔. 시베리아 일부를 점령하였으나 러시아 혁명 군대와 민중의 저항으로 간섭전쟁에서 패퇴함

나. 쌀값의 폭등

- * 쌀값의 폭등을 예상한 매점매석이 발생 : 서민들의 폭동을 야기, 전국적으로 확대 (米 騷動)
- * 도야마만 인근의 어촌의 부녀자가 쌀의 반출 정지와 염가 판매를 요구함
: 신문의 보도로 소동의 발단이 됨
- * 쌀값의 폭등의 전국화 : 공장 노동자, 탄광부, 피차별 부락민, 건설노동자
: 정부의 대응이 늦고 탄압은 엄하여 경찰, 군대까지 동원
→ 내각 타도 여론으로 데라우치 내각 총사직

다. 최초의 정당 내각 구성

- * 이러한 국제 정세를 배경으로 국내에서는 호헌운동을 전개하던 정당들이 정부의 주인이 되는 정당 내각이 출현하였고, 1925년에는 보통선거법이 만들어져 성인 남자에게 선거권이 주어졌다. 이것은 비정당 세력에 대한 정당 세력의 승리였다
- * 원로들은 관료 내각의 한계를 인정하고, 중의원 제1당인 입헌 정우회 총재인 하라 다카시(原敬)를 후임 수상으로 추천함 : 평민 재상으로 불리며 국민의 인기 정치가로 등장함
- * 1920년 총선거에서 중의원의 압도적인 다수당이 됨

라. 정당 내각의 붕괴

- * 大戦 후의 경기 악화, 정우회 관련 부정부패 사건, 다수당의 횡포, 정권에 대한 비판이 분출됨
- * 지식인, 학생, 노조 등의 남자 보통선거제(보선) 실시 요구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임
- * 1921년 하라 수상이 도쿄역에서 한 청년에게 암살을 당함

마. 보선운동

- * 보통선거권을 요구하는 운동 : 민중 운동으로 크게 일어남
- 1919년부터 1920년까지 전국적으로 연설회와 데모 행진이 전개됨
: 20대에서 50대까지, 학생, 상인, 직공, 회사원 등 다양한 계층에서 참가함

- 하라 내각은 민중운동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중의원을 해산함

* **정우회의 압승**

- 직접 국제 3엔 이상, 소선거구제에 의한 선거로 정우회가 압승함 (278/464석)

- 안정적 의석을 차지하자 사회주의 억압책을 강화함

바. **정당 정치의 전개 ; 제2차 호헌운동**

* **관료 내각의 재등장** : 정당 정치의 실시와 보선 실시 문제가 정계의 핫 이슈

- 1924년 귀족원과 관료 세력에 기반을 둔 기요우라 게이코 내각이 출범

: 헌정회 등 3당은 호헌 3파를 결성함 → 보선 당행, 정당 내각 수립을 주장 (제2차 호헌 운동)

- 정부는 정우본당을 여당으로 한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거를 실시함 : 호헌 3파가 압승

- 헌정회의 **가토 다카야키 총재**가 수상이 됨 : 보통 선거법을 성립시킴

- 기존의 정단들은 무산 정당의 출현과 사회주의자들의 천황제 부정론에 두려움을 느낌

* **치안유지법의 통과**

- 국체의 변형 또는 사유재산제도를 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나 참가자를 처벌하는 규정

→ 사상범에 대한 탄압 목적, 식민지 조선에도 적용됨

- 日蘇기본조약 조인에 따른 공산주의 사상의 유입을 저지하려는 의도

- 4개 사단을 폐지하는 군축과 동시에 군대 장비의 경신, 중학교 이상의 학교에 현역 장교를 배속, 군사 교련의 도입 등 군의 기반 강화를 꾀함

* **憲政의 常道**

- 1926년부터 1932년까지 정우회와 민정당(헌정회+정우본당) 총재가 교대로 내각을 구성함

- 수상에 대한 추천권은 여전히 원로에게 있어 정당 내각의 취약한 근거를 극복치 못함

5. **다이쇼 데모크라시 시기의 사회와 문화 : 1912년~1926년**

가. **사회 경제의 변화**

* **천정보지주 (千町步地主)** : 전국의 소작지 비율이 45%를 돌파

- 비료와 농기구의 발달 등으로 경작 면적당 수확량의 증대. 야채, 과일 재배의 성행

- 기생지주에 의한 토지의 매점이 증가

* **사회 경제의 변화**

- 1919년부터 무역적자, 전후 공황. 간토 대지진(1923년), 금융 공황(1927년)이 발생

- 정우회 내각으로 정권이 바뀌었지만 나아지는 것이 없었음

- 1920년대에는 전기기계, 전기화학 등 전력 관계 중공업 부문이 발전 “ 공황과 불황의 지속

- 재벌들의 기업의 집중, 카르텔 형성, 정경유착, 중소기업의 증가 경향

나. **민주주의적 사회운동**

* **노동조합의 결성**

- 1912년 스즈키 분지 등에 의한 **우애회**(초기에는 노사협조 등 온건적 → 점차 급진화)가 **일본노동총연맹 (총동맹)** 으로 개칭(1921년)하면서 계급투쟁주의를 명확히 함

- 1925년에 좌파그룹으로만 결성된 **일본노동조합평의회(평의회)** : 일본 공산당의 지도

* **일본 농민 조합의 결성** : 농민 운동에 지도적 역할을 담당 (1922년)

* **세이토샤 (靑踏社)**의 결성 : 여성의 해방, 지위의 향상을 꾀하는 사상과 운동

→ 문학적 사상 계몽운동이 중심, 여성 참정권. 赤蘭會(사회주의) 결성

* **공산당의 결성** : 1922년 러시아 혁명과 노동운동의 고양에 따라 비밀리에 결성

- * **피차별 부락** (천민인 에타의 거주지를 부락이라고 함)의 주민들이 사회적 차별을 자주적으로 철폐하려는 부락 해방운동이 일어나 192년 전국수평사가 결성됨
- * 참정권 확대 요구인 보통 선거권 획득 운동이 공통적으로 주장

다. 학문과 교육의 변화

- * 교육과 저널리즘의 발달 : 학문과 사상 분야의 자유주의적 분위기
- * 신문 부수의 확대 : 종합 잡지, 문학전집 (엔폰, 이와나미 문고), 대중잡지(킹구)
 - 이들을 무대로 하는 대중 소설가도 나타남
- * 도시 : 빌딩과 백화점 등장, 서양식 의식주, 교외의 문화 주택, 전기, 가스, 수도, 전화
 - 백화점 점원, 전화 교환수, 버스 안내원 등의 직접여성
- * 농촌 : 청년단을 중심으로 도시의 자유스러운 분위기를 수용하는 움직임
- * 각종 미디어 : 도쿄와 오사카에 라디오 방송(1925년) → 뉴스 속보와 표준어 보급
 - 외국 사상과 문화가 소개됨 : 마르크스주의가 지식인층에 영향을 미침
 - 학문 분야 :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자유주의 분위기
- * 천황기관설 (미노베 다쓰기치)을 주창하여 천황주권설(우에스키 신기치)을 비판함
- * 실증적 고대사 연구(쓰다 소우키치)와 민속학의 야나기 구니오, 서민 생활사 연구(니시다 기타로)
- * 염료, 약품 등에 관한 독자적인 연구, 이화학, 항공 연구소, 지진 연구소 설립
- * 교육 : 글짓기 운동(스즈키 미에키치), 동요 운동(기타할 하쿠슈) 자유 교육운동(시나노)

라. 근대 문학의 조류와 예술의 발달

- * 문 학
 - 잡지 : 시라카바 → 인도주의 이상주의를 호소함 / 스바루 : 탐미파 → 개성적 미의 세계
 - 잡지 '신사파' : 신현실주의 문학을 창조, 사소설의 양식
 -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성행 : 사회주의 사상과 노동자의 입장 → 씨뿌리는 사람, 문예전선
- * 미술계
 - 서양 화단 : 이과화가 결성되어 문부성 미술전람회에 대항함
 - 일본화 : 일본미술원이 재흥 : 요코하마 다이칸, 시모무라 간잔
 - 음악 : 오페라 (미우라 다마키), 오케스트라 (야마다 고사쿠)
 - 연극 : 신극분야에서 예술좌가 생김, 도쿄에 소극장 창립

마. 간토 대지진과 조선인 학살사건

- * 간토 대지진 : 1925년 9월 1일 발 생하여 도쿄, 오사카 지역 일대가 꺾멸됨
 - 유언비어 속에서 자경단이나 경찰관에 의해서 조선인, 중국인, 일본인까지도 학살 당함
 - 조선인 유학생들이 재난의 희생자 : 양 6.700명의 조선인, 약 700명의 중국인이 희생됨
- * 무정부주의자인 노동운동 지도자 10여 명이 살해되었다

제 13 장. 군부의 등장과 대륙 침략

1. 군부 등장의 배경

가. 금융 공황 :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전후 공황에 시달리는 일본

* 금융 공황(1927년 3월) : 재난 어음의 처리를 둘러싸고 민간 은행의 경영 악화의 표면화. 예금 인출
나. 거대 상사인 스즈키 상점이 파산하고, 그 영향으로 타이완 은행의 경영이 악화됨

다. 와카스키 내각은 구제를 위하여 긴급 칙령안을 제출했지만 부결되어 총사직함

: 내각의 외교정책에 대한 불만이 부결의 원인임

2. 만주 사변 전의 일본과 중국

가. 1920년 전반 일본은 워싱턴 체제하에서 협조 외교를 전개함으로써 평화로운 국제 질서 유지에 동조하였다. 중국에 대해서는 경제 진출에 중점을 두는 외교 정책을 전개함 : 시데하라 외교

나. 중국의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에 대한 민중 운동

* 1924년 중국국민당과 중국공산당(쑨원)이 제국주의와 군벌의 타도를 공동 목표로 제1차 국공합작을 성립함

* 1926년 장제스(蔣介石)를 총사령관으로 하는 국민혁명군은 군벌 타도를 목표로 북벌을 개시함

: 이에 대하여 일본 내에서는 시데하라 외교를 군부, 재계, 정우회가 '연약외교'라고 비판함

3. 다나카 내각의 파병

가. 정우회의 다나카 기이치가 내각을 조각

* 3주 간의 모라토리움과 일본은행으로부터의 비상 대출로 금융공황을 수습함

: 중소 은행의 타격에 비해 5대 은행은 영향력이 강화됨

나. 일본의 대외 정책도 급변하는 중국의 정세에 따라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 1926년 장제스의 북벌이 개시되었을 때, 일본이 산둥(베이징)에 세 번이나 출병하여 중국의 통일을 방해한 일(노동 농민당을 비롯한 무산 정당들은 대중국 불간섭 전국 동맹을 결성하여 출병을 반대함).

* 일본은 滿蒙을 일본인이 안주할 땅으로 삼을 것을 결정

: 만몽을 지배하는 산둥의 친일 군벌 장쥘린을 장제스와 대립시키려고 하였으나 관동군이 폭살시킴

(장제스의 국민혁명군에게 누명을 씌우고 전면전으로 만주를 점령하려는 모략 : 다나카 내각이 총사직함)

→ 협조 외교의 틀을 깨뜨리는 대표적인 사례로 만주에서의 반일 운동의 격화의 원인이 됨

다. 일본 국내에서는 1928년 최초의 보통선거가 실시되어 무산 정당은 8명의 당선자를 얻음

* 다나카 내각은 3.15사건, 4.15사건으로 공산당원을 검거

* 노동농민당, 일본노동조합평의회 등에 해산을 명령함 : 치안유지법을 강화하여 탄압을 강화함

4. 만주 사변과 만주국

가. 런던 해군군축조약과 통수권간범 문제

* 하마구치 오사치 내각의 등장 : 시데하라 외상의 협조 외교 노선이 부활됨 → 금 수출금지를 해제

* 협조외교는 1930년 런던 군축 회의 비준을 둘러싸고 난관에 봉착함

: 통수권간범(統帥權干犯. 천황의 고유 권한인 병력량 결정을 정부가 조인한 것을 비판함)

→ 해군 강경파가 제시한 순양함 對 영·미 7할의 비율의 마지노선을 채우지 못하고 조인함을 비판

* 하마구치 내각의 강경 대응으로 겨우 비준됨 : 1931년 하마구치 수상이 우익에게 저격당함

나. 세계 대공황에서 비롯된 쇼와(昭和)공황 : 1929년 미국에서 시작된 세계 대공황의 영향

* 수출의 격감. 긴축 정책으로 인한 불황, 조업 단축, 도산 현상 : 노동 강화, 임금 삭감, 인원 정리

* 농촌의 타격 : 누에값 폭락. 쌀값 폭락으로 흉작이 기근을 초래 → 농업 공황

* 노동 운동의 격화 : 중소기업의 절박한 쟁의, 대기업의 대규모 쟁의, 농촌에서의 소작쟁의

다. 정치에 대한 불신

- * 강경파들의 급진적인 수단 강구 : 군부와 관료 사이에서 문제 해결하려는 그룹이 나타남
- * 1931년부터 일본의 중국 침략으로 워싱턴 체제하의 협조체제는 종언을 고함
- * 호헌 운동을 통하여 정당 내각이 성립한 후 1932년까지 중의원에서 세력을 차지한 정당의 당수가 내각을 구성하는 관행이 이루어졌으나, 선거권의 확대로 선거 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자 정당 정치를 재벌과 유착하는 금권 정치로 변질되어 정당에 대한 불신을 더욱 조장시켰다

라. 만주 사변 : 장쥘린 사건으로 배일운동 격화

- * 일본의 국가주의 성향이 강한 여론과 군부는 1930년 런던의 해군 군축 회담의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1931년 만주를 침략하기에 이르렀다.
- * 장쥘린의 아들 장샤오량은 장제스의 중국국민당과 손을 잡자, 관동군은 위기감이 증폭되어 만주 지역을 무력으로 일본 세력하에 넣겠다는 계획을 수립함
- * 1931년 9월 류타오후(柳條湖)에서 남만주 철도 연선이 폭파되자 이를 중국군의 도발이라고 우기며 군사 행동을 개시함 : 만주 사변의 시작
- * 일본 정부는 불확대 방침을 결정에 대해 일본군(조선군)이 천황의 명령없이 독단으로 불법 일경을 단행하여 확산되기 시작함 : 12월에 정우회의 이누카이 내각이 들어섬
- * 만주국 건국을 선언 : 1932년 3월 만주 지역의 주요 지역을 점령 후 청나라 최후의 황제였던 선통제 푸이(溥儀)를 탈출시켜 집정으로 삼음 : 일본과 중국의 15년 전쟁이 시작됨
- * 중국은 국제연맹에 제소하고, 구미 열강은 일본의 행동을 비난함
→ 국제연맹은 영국의 리튼 조사단을 파견함

5. 군국주의 일본의 중국 침략

가. 일본 파시즘의 등장

- * 혁신파(군부의 청년 장교, 우익)에 의한 국가 개조 움직임 → 군부 중심의 내각 구성의 필요성을 주장함
- * 1932년 혈맹단 사건으로 암살을 자행하고 5/15에는 해군 장교들이 이누카이 수상을 사살함 : 정당 내각을 붕괴시킴

나. 정당 내각의 종언 : 마지막 원로인 사이온지 긴모치는 사이토 마코토(齊藤實)를 추천함

- * 사이토 내각은 日滿議定書を 체결하고 만주국을 승인
→ 국제연맹은 일본에 사변 前의 상황으로 복귀할 것을 권고함
- * 국제연맹 총회(1933년 2월) 에서 대일권고안이 채택되자 국제연맹 탈퇴를 통고함 : 워싱턴 체제 이탈과 국제 사회에서의 고립의 길을 선택함
- * 일본은 독자적인 만주 경영에 나서고 帝政을 실시함 : 푸이 황제를 즉위시킴 : 1936년에는 워싱턴, 런던 군축 회의를 탈퇴함

6. 공황 경제의 탈출과 군국주의의 대두

가. 관리 통화체제 도입

- * 1931년 12월 이누카이 내각이 성립 후 금수출 재금지를 단행함 : 관리통화체제
→ 엔의 환율 하락을 기회로 수출을 비약적으로 증대시킴
- * 미국, 영국이 일본 상품에 대한 덤핑 판정으로 고관세를 부과하였으나, 면직물 수출은 영국을 제치고 세계 1위로 부상함
- * 만주 사변으로 인하여 군수 경기와 수출 증진으로 산업계는 활기를 찾음 : 1933년에는 공황 이전의 수준으로 경기가 회복됨 → 군수산업과 연관된 중화학공업이 발전함
- * 일본제철회사, 자동차 공업과 화학공업에서도 신흥재벌이 등장함

나. 국방국가 건설 계획의 추진 : 혁신 관료 그룹과 군부의 막료 그룹이 연계됨

- * 일본국가사회당의 결성 (1932년) : 일본 좌익의 국가사회주의로의 전향의 시대로 사회운동의 빙하기
- * 사상과 언론의 탄압 :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탄압 사건이 계속됨
- * 군부의 정치적 발언이 강화됨 (1930년대 중반) : 군부와 혁신 우익이 대두되기 시작함

- * **오카다 게이스케 내각**이 등장 (1934년) : 육군성에서 “국방의 본위와 그 강화의 제창” 문건이 공개 : 육군이 정치, 경제에 관여해야 한다는 내용
- * 도쿄대학 교수 미노베 다쓰기치의 ‘천황기관설’에 대한 비난에 대해 공격하여, 내각은 굴복하여 國體明徴聲名을 발표하고 미노베는 의원직을 사임함
- * **군부의 대립 양상** : 統制派(군의 주도권 장악)와 皇道派(반 공산주의, 복고적, 정신주의적)
 - **황도파 계열**의 육군 청년 장교들이 쿠데타를 단행 : 대장상, 내대신, 육군 교육총감이 살해됨
 - 도쿄정치 중심가인 나카타쇼가 점거 당함 (**2.26 사건**) : 쇼와 천황이 반란으로 규정하여 군부에 의해 진압당함
 - 쿠데타의 수습에 나섰던 육군 당국은 肅軍(군의 기강을 위해 내부의 부정에 관련된 사람과 불순분자를 숙정함)을 단행함 : **통제파의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됨**
- * 이처럼 국가주의적 성향이 높아가는 가운데 과격한 청년 장교들이 일으킨 2.26 사건은 일본의 대륙 침략을 가속화시키는 촉매 역할을 하였다
- * **후임 내각**은 각료의 인선이나 정책에 대해서까지 군부의 요구를 수용 : 정치 개입을 용인함

7. 삼국 방공 협정과 중·일 전쟁

가. 삼국 방공 협정 : 일본, 독일, 이탈리아 삼국 주축 진영

- * 1930년대 들어 베르사유체제와 워싱턴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함
- * **이탈리아는 무솔리니의 파시스트 정권**(1922년), 제1차 세계대전에서의 패배 후유증에 시달리던 **독일은 히틀러의 나치스**(국민사회주의 독일노동자당, 1933년)이 정권을 장악함
- * 독일은 국제연맹에서 탈퇴하고 재무장을 선언함(1935년) : 독일과 이탈리아는 스페인 내전에서 우익 프랑코 정권을 지원하는 것을 계기로 베를린, 로마 주축이 이루어짐
- * 독일과 일본이 독일 방공 협정을 체결하며, **1936년 삼국 방공 협정이 체결됨**

나. 중·일 전쟁

- * 일본은 중국 정부와 **중일 군사 정전 협정**을 체결함 (1933년 5월). 그러나 일본은 **화북분리공작**을 추진하여 (만리장성 이남의 중립지대에 괴뢰정부를 세우고, 이를 지원하며 국민 정부와 분리시키는 공작) 을 추진함 : 화북지역에서 밀무역으로 부를 축적하여 전쟁자금으로 활용코자 함
- * 중국에서는 1936년 시안사건을 계기로 **장제스**는 국공내전을 중지하고 일본에 대한 응전태세를 갖추기 시작함 : 1937년 루거우차오(盧溝橋)에서 양국이 충돌함 → 중, 일 전쟁의 발발
- * 중국의 국민 정부도 9월에 제2차 국공합작을 성립시켜 전국적인 항일전선이 형성됨

다. 난징 대학살

- * 국민정부의 수도 난징을 점령(1937년 12월, **난징 대학살 사건** : 중국인 수십 만 명을 살해, 침략, 방화, 부녀자 폭행) → 국제적인 비난이 비등함. 일본 국내에는 알려지지 않음
- * 1938년 1월 “장제스의 국민정부를 대화 상대로 하지 않겠다”는 성명을 발표함
- * 1938년 말에는 “**東亞 신질서의 건설**”이 전쟁의 목표임을 공표하고, 국민정부의 주요 인사인 왕자 오밍을 충칭에서 탈출시켜 새로운 난징정부를 수립함 : 장제스 정부는 미국, 영국, 소련의 원조를 받으며 항전을 계속함

라. 일본 국내의 국가총동원 체제의 확대

- * **국가총동원법** (1938년, 정부가 의회의 동의없이 경제와 국민 생활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의 제정
- * 정부 내에 기획원이 설치되어 **물자 동원계획**이 작성되고 **군수품이 우선적으로 확보됨**
- * **국민징용령**(1939년, 일반 국민도 군수산업에 동원할 수 있게 됨), **재벌과 대기업도 군수 생산에 적극적 협력함**
- * 일본의 군수품 확보의 어려움
 - **미일 항해 조약의 폐기**(1939년 7월)로 군수품 확보가 곤란해짐
 - 민간 생활용품에 대한 수입 통제 : 면제품의 생산 판매 금지, 설탕 등의 물표제, 쌀 배급제, 일용품에 대한 통제

- 농촌에서의 공출제. 식량난의 심각한 상태
- 군수품의 조달은 점령지(엔 블록)만으로 부족함
- : 영국, 미국의 대일 무역 규제로 자원 확보의 눈을 동남아시아로 돌리게 됨

제 14 장. 제2차 세계대전과 일본의 패망

1. 중. 일전쟁의 장기화

- 가. 세계 정세를 배경으로 일본은 1937년 중국과 전면전에 들어갔다. 이렇게 시작된 중, 일 전쟁은 애초의 예상과는 달리 장기전으로 치달았다. 국공합작을 이룬 중국의 저항이 예상보다 집요했기 때문이었다.
- 나. 일본은 국가총동원법을 만들고 이어서 국민징병령도 실시하여 전시 총동원 체제로 돌입하였지만 중국을 완벽하게 장악할 수 없었다.
- 다. 중국의 국민정부는 수도를 난징에서 충칭으로 옮겨 일본에 항전을 계속하였다. 일본군은 중국의 주요 도시를 대부분 점령하였으나 점령지는 '점과 선(도시와 철도선)'에 그쳤다 : 군사력 동원의 한계
- 라. 일본은 방공 협정에 따라 가상 적국이 되어버린 소련과의 대치하에서 만. 소 국경의 장고봉에서 조선 주둔 일본군과 소련군간의 충돌(1938년. 장고봉 사건)과, 만. 몽 국경의 노몽한에서 소련. 몽고군이 관동군과 충돌(1939년 5월. 노몽한 사건)이 발생함 : 관동군의 대패

2. 일. 독. 이 삼국의 군사 동맹

- 가. 1930년대 중반은 독일에서는 히틀러의 나치스가, 이탈리아에서는 무솔리니의 파시스트가 독재체제를 굳혀 가던 시기였다. 일본에서도 정당 정치가 종식되고 군부를 중심으로 국가주의적 성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 나. 유럽 지역의 전황 : 독일의 팽창. 1930년대 후반
- * 오스트리아 병합(1938년), 소련, 영국, 프랑스도 가상적국으로 하는 군사동맹을 일본에 제안
 - * 독일이 폴란드를 공격(1939년 9월)하자 영국, 프랑스도 독일에 선전포고함 : 제2차 세계대전 발발
- 다. 일본은 독일과의 군사동맹에 소극적 : 유럽전쟁에는 개입하지 않는 방침
- * 독일이 유럽 각지를 점령하며 프랑스에 입성함(1940년) : 일본은 동남아시아로 진출하자는 분위기
 - 영국 및 미국과 전쟁을 각오하여야 했음 : 군부의 움직임을 정부나 의회가 통제할 힘이 없었음
- 라. 일·독·이 삼국의 군사동맹
- * 1936년 독일·이탈리아·일본은 소련을 가상 적국으로 삼아 방공 협정을 맺어 이른바 주축 진영을 형성하였다. 이들은 워싱턴 체제와 베르사이유 체제를 타파하고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자 함
 - * 독일의 군사적 성공에 매혹된 일본에서 일독 동맹론이 일어남 : 이,도,이 삼국 군사동맹을 조인함 (1940년 9월) → 삼국의 지도적 지위를 상호 승인, 동맹국 간 상호 원조
 - * 南進論 : 중일전쟁을 타개하기 위한 원장(援蔣)루트(장제스를 지원하는 루트) 차단 및 석유, 철광석 등 전략물자 획득 목적
 - * 프랑스령인 인도차이나를 침공(1940년 9월), 군대를 진군시켜 영.미 세력권(필리핀, 말레이 반도)을 위협함 : 미국은 미일통상항해조약 폐기, 철강, 석유의 대일 수출 금지, 재외 일본 재산의 동결
 - * 미국과의 관계만 극도로 악화되어 미. 일 통상조약이 폐기되기에 이르렀다.

3. 파시즘 체제의 확립

- 가. 결국 밖으로부터의 자원 조달이 어려워진 일본은 경제적으로는 강력한 통제 경제를 실시하지 않을 수 없었고, 정치적으로는 대정익찬회를 만들어 일국 일당 체제를 추구했다.

- * **대정익찬회(大政翼贊會)**의 결성 : 1940년 10월
 - * “一國 一黨”적인 신정당 수립 : 일본형 파시즘체제를 확립함
 - * 수상을 총재로 하고 도부현 지사를 지부장으로, 정내회, 부락회, 도나리구미를 갖춘 관료적 조직
- 나. **대일본산업보국회** 설립 : 1940년 11월
- * 노동자를 통제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해체시킴
 - * 국민징용령과 민수산업의 노동자를 군수 산업으로 동원, 학생, 미혼여성을 강제로 군수산업에 동원

4. 태평양 전쟁의 발발

- 가. **미일 교섭의 개시** : 1941년 4월 → 미리 교섭안이 상호 일치하지 않아 결렬됨
- * 미일 교섭 전에 **스탈린과 일소 중립조약**을 체결하여 미국에게 압력을 가함
 - * 6월 22일 독일과 소련의 전쟁이 시작되자 북진론이 대두되어 소련과의 국경에 대군을 파견
 - * 미국은 일본이 베트남을 점령한데 대하여, **대일 석유 수출금지조치**를 취하며 **중일전쟁 이전상태로 복귀할 것을 요구함** : 1941년 11월 일본과의 전쟁은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최후 통첩을 함

나. 태평양전쟁의 감행

- * 일본은 마지막 선택으로 **1941년 12월 진주만에 대한 기습 공격**을 강행 → 미국, 영국에 선전포고
- **영국의 식민지인 말레이 반도의 코타발 지역을 기습 상륙하고, 해군은 진주만을 기습함**
- * 홍콩, 말레이 반도, 싱가포르, 미얀마, 네덜란드령인 동인도 제도, 필리핀 제도를 점령 (1942년 5월)
- * 미국의 반격으로 일본은 수세에 몰리게 되었다.

5. 전쟁의 참상 : 오키나와전과 본토 공습

가. 대동아 공영권 건설을 선전

- * 독일, 이탈리아도 미국에 선전포고함으로써 전쟁은 전 세계로 확대됨
- * 일본은 점령지에 대한 군정을 실시 : **구미 열강의 지배에서 아시아를 해방, 대동아공영권의 건설**
- * 緒戰에서 미국의 태평양함대의 주력을 파괴하여 승리하였으나 **미국과의 국력 차이 (30배)**를 알고 있었음 : 전쟁 열기가 만들어 내는 정신 나간 “주산 알의 마력“

나. 전쟁의 국면 변화

- * 1942년 6월 미드웨이 해전에서 무참히 패배함 : 1943년 2월 솔로몬 제도에서 일본군이 철퇴 → **전쟁의 주도권이 미국으로 넘어 가고, 태평양 지역에서 보급로가 차단됨**
- * 일본의 지배에 대한 아시아 각 지역의 반발이 강해짐
- * 독소 전쟁에서 독일군이 스탈린그라드에서 패퇴하자 소련군이 반격을 개시함 (1943년 2월)
- * **미,영,중 연합국 수뇌가 대일 선언 발표 : 전쟁 종결방침을 토의 (1943년. 카이로 선언)**
→ **중국의 귀속, 조선의 독립**
- * **이탈리아의 항복(1943년 9월), 독일의 항복(1945년 5월) : 미,영,중 연합국 수뇌가 대일 선언 발표**
→ **전쟁 종결방침을 토의 (1943년. 카이로 선언. 중국의 귀속, 조선의 독립)**

다. 오키나와 전투 : 일본 영토에서 일어난 유일한 지상전

- * 미국은 일본 본토 공습을 개시(1944년 11월 이후) : 대도시, 공업지대를 집중 폭격
- * **오키나와 공격 작전(1945년 3월 하순)** : 일본은 본토 결전을 위한 지구전을 전개 → **철의 폭풍**
- * 1945년 6월말 오키나와는 미국의 점령하에 들어감

6. 일본의 항복

가. 항일 운동의 계속

중국(중국 공산당의 해방구 확대), **조선인민혁명군과 한국광복군**, **베트남**(호치민의 독립동맹), **필리핀**(항일인민군)

나. 일본의 항복

- * **알타히담**(1945년 2월. 소련의 일본전 참전 결정), **포츠담 선언**(7월 미국, 영국, 중국은 3국 동맹으로 일본의 항복을 요구)
→ 일본은 이를 묵살함
- * **원자 폭탄 투하** (히로시마, 나가사키. 1945년 8월6일), 소련은 만주, 조선으로 진입하여 관동군을 괴멸함(8/9)
- * 일본의 무조건 항복 선언 (8/14). 미국 군함 미주리호 선상에서 항복문서에 서명 (9/2)
- * 전쟁 사망자 : 아시아, 태평양 지역 2천만명, 일본인 330만명

7. 전시하의 국민 생활과 문화

1. 국민 생활의 붕괴

- 가. 군수 생산에 박차 : 풀뿌리 뽑기 방식의 동원, 식민지 지역에 대한 군사력과 노동력 강제 동원
→ 학도 출신. 어린 학생의 근로 동원, 여학생의 여자 정신대(군수공장) 동원
- 나. 구미 국가로부터의 수입 중단 : 물품의 배급제, 전쟁의 심각한 후유증
- 다. 본토 공습의 본격화 : 군수공장 이전. 노인, 부녀자의 소개(疏開. 주민, 시설의 분산), 學童疏概
- 라. 군사비의 증대, 공채 난발로 인플레이션 발생, 厭戰의 기분이 퍼짐 : 물물교환으로 연명
- 마. 통제와 정보 조작, 초국가적인 교육에 의해 국민의 불만은 표출되지 못함

2. 1930년대 학문과 교육

- 가. 사회과학 수준의 향상 : 마르크스주의 이론이 도입→ “일본 자본주의의 발달사 강좌” (1932년)
- 나. 학문에 대한 통제
 - * 형법학설(자유적이고 구체에 반한다는 이유) 발매금지, 천황기관설을 이론화(미노베. 국제명징성명)를 공격함
 - * 중일 전쟁의 시작 후 통제 강화 : “국체의 본의”를 작성하여 국체의 존엄을 강조
→ 국민정신 총동원 운동 시작, 일상 생활에 대한 통제
 - * 마르크스 경제학자의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검거
- 다. 소학교 명칭이 초등학교로 개칭 : 황국신민의 육성
→ 국민과, 체련과 교과목을 만들어 심신일체의 교육을 실시함

3. 문화계의 변화

- 가. 카페와 댄스홀 등이 성행 : 불안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음
- 나. 프로레타리아 문학 운동 : 전일본 무산자 예술동맹과 기관지 발행
- 다. 문예부흥 : 1930년대 들어 성숙한 작품과 예술주의적 작품 → 프로레타리아 문락운동은 쇠퇴
- 라. 전쟁문학의 유행 : 일본문학보급회가 결성(1942년) → 낭만파는 초국가주의적 시류와 연합
- 마. 전쟁에 협력하지 않는 작가들도 있었음

제 15 장. 점령기의 개혁과 현대 일본

1. 일본 점령과 연합군 최고 사령관 총사령부 (GHQ)

가. 일본은 1945년 8월 무조건 항복함으로써 연합군의 점령하에 놓이게 되었다. 연합군의 일본 지배는 연합군군 최고 사령관 총사령부인 GHQ가 담당하였다.

나. 그 최고 사령관이었던 맥아더 장군은 초법적 권한을 행사하면서 점령 정책을 실시했으나, 그것은 직접 지배가 아니라 일본인 내각을 통한 간접 지배였다

- * 일본 정부가 최고사령관의 지령과 권고에 따라 정치를 하는 방식
- * 워싱턴에 극동위원회를 두고 도쿄에는 자문기관으로 미,영,중,소 4개국으로 구성된 대일위원회 :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단독점령 → 오키나와를 제외한 간접 점령정치가 시작 (10/2)

다. 연합국 50여 국가는 1945년 10월에 국제연합을 탄생시켰다 : 동서 양 진영의 대립은 시작

2. 초기 점령정치와 민주화 개혁

가. 5대 개혁 지령 (1945년 10월)

여성 해방, 노동조합의 육성, 교육의 민주화, 압제적 사법, 경찰 제도의 폐지, 경제의 민주화

나. 극동국제군사재판 (1946년 5월) : 쇼와 천황은 제소되지 아니함

다. 천황의 인간선언 (1946년 1월) : 국가와 신도의 분리 지령, 자신의 신격을 부정함

→ 천황의 인간 선언은 당시의 민주화 정책을 상징하는 사건이었다

라. 전쟁 협력자 21만 명을 공직에서 추방함

마. 민중운동의 급속한 추진

- * 전일본 산업별 노동조합회의(산별), 일본노동조합총연맹(총동맹), 일본농민조합 등 전국조직 결성
- * 일본 공산당의 활동 재개, 일본사화당, 일본자유당, 일본진보당, 일본협동당 결성
- * 노동조합법 제정 :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쟁의권 보장

바. GHQ의 지령으로 부인 참정권과 유권자 연령을 20세로 낮추는 정책이 실현됨

- * 재벌 해체 방침으로 독점 금지법, 과도경제력집중배제법 제정 : 4대 재벌의 해체 명령
- * 자작농 창설 특별조치법 : 제2차 농지 개혁으로 전 농지의 90%가 자작지가 됨
→ 기생지주제가 소멸됨

사. GHQ의 점령 정책은 일본의 비군사화와 민주화에 있었다. 따라서 육해군의 해체, 전범의 체포, 천황 제 비판의 자유, 정치범의 석방, 사상 경찰의 폐지 등 과감한 정책들이 실시되었다.

아. 경제면에서도 군수 산업과 재벌에 규제가 가해졌고 독과점 금지법 등이 만들어졌다.

3. 일본국 헌법

가. 패전과 국민 생활

- * 식량난과 인플레이션 : 물가 급등, 쌀 대신 간자, 고구마로 배급을 대체
- * 최초의 총선거 : 맥아더의 성명 발표로 자유, 진보의 두 부수 정당의 연립에 의한 요시다 시게루 내각이 성립됨

나. 헌법과 교육개혁

- * 1946년에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새 헌법의 만들어졌다. 이 헌법은 전쟁 포기 조항이 들어 있어 평화 헌법이라 불리기도 한다
- * 헌법개정 : 민주화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설정 → GHQ가 헌법 초안을 작성해 일본 정부에 교부함
 - 1946년 11월 3일에 신헌법안이 공포되어 이듬해부터 시행에 들어감
 - 主權在民, 평화주의, 인군존중의 3원칙의 확립, 양원제 국회, 천황은 일본 국민통합의 상징

- **헌법 제9조** : 전쟁의 방기, 국제분쟁의 해결의 수단으로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
→ 군대를 가지지 않는다고 규정됨
- 지방자치법의 공포(도도부현 지사의 공선제)와 경찰법(지방자치제경찰과 국가경찰의 두 계통)강화

* **교육개혁**

- 교육기본법 공포 : 교육 기회 균등, 남녀 공학, 9년간 의무교육
- 교육칙어의 폐지. 지자체 내에 공선에 의한 교육위원회 설치
- 직업 군인과 군국주의자를 교직에서 축출, 신도를 국가에서 분리, 교육기본법과 학교교육법 공포

* **새로운 민법의 제정** : 男女同權, 재산의 균등상속

* **노동 3법 정비** : 보통노동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관계조정법

다. 이처럼 전 분야에 걸쳐서 GHQ의 개혁이 단행되었지만 모든 개혁 정책이 성공적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전후 소련이 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의 대립이 거세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4. 냉전 체제의 전개

가. 점령정책의 변화

- * 이처럼 점령 정책이 변화함에 따라 과거 일본을 전쟁으로 이끌었던 정치가들이 다시 정계에 복귀하여 정치는 갑자기 보수화되었고, GHQ의 **민주화 정책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 * 이른바 냉전체제가 시작되자 일본의 역할이 바뀌기 시작했다. 즉, 아시아에서 공산주의를 방어하는 방파제로서의 역할이 일본에 부여되었다. 이제는 일본의 경제 재건과 재무장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 * GHQ의 지령으로 노동조합의 스트라이크는 중단되고, 아시다 내각은 정령 201호를 공포하고 공무원의 쟁의권, 단체교섭권을 부인함

나. 경제와 노동운동

- * 경제 안정 9원칙을 제시함 (**dot지 라인**) : 미국의 국무성과 국방성의 요구
 - 1949년 예산은 지출을 삭감한 균형 예산으로 편성, 단일 환율 설정, 세제 개혁
→ 일본 경제는 심한 불황으로 중소기업 도산, 실업자 증가 등 사회문제가 발생함
- * 정부는 행정 정리, 기업 정비를 내걸고 대량 해고를 추진함
→ 국철, 도시바 등 노조에서는 해고 반대 투쟁이 예고됨
- * 시모야마 사건, 미티카 사건, 마쓰카와 사건 등의 범인으로 노조 임원 등이 체포됨
→ 민주화 동맹파가 조합의 주도권을 장악하여 반대 투쟁은 좌절되고 인원 정리가 실시됨

다. 일본의 재군비

- * **도쿄전범 재판**(1948년 11월)으로 전쟁 범죄의 추궁은 종료됨
- * **경찰예비대 창설**(1950년 7월) : 헌법 9조 위반의 논란을 일으킴
 - 맥아더의 서한으로 재일 미군의 한국 출동 후 치안유지 등을 담당할 군사력을 대신하기 위함
 - 무기, 탄약은 미국이 제공, 미국 장교로 편성된 군사 고문단이 지휘권을 장악함
- * 6.25 전쟁 발발 직전에 일본 공산당의 전 중앙위원의 공직에서 추방함
→ 정치 집회와 데모 행진을 금지함 (**레드 퍼지도 취함**)
- * **한국전쟁의 시작**으로 일본은 유엔군의 기지가 됨 : dot지라인으로 인한 불황에서 호경기로 전환됨
→ 무기, 군수품의 생산, 수리 수송에 공장, 선박, 철도가 최대한 동원됨

5. 샌프란시스코 강화 회의 (1951년 9월) : 6.25 전쟁의 발발 이후

가. 일본의 주권회복, 한국의 독립 승인, 타이완, 평후제도, 지시마 제도, 남사할린 영토권의 방기

나. 남서 제도와 오가사와라 제도에 대한 미국의 시정권행사의 계속, 외국 군대 주류의 승인

다. 요시다 내각(정권)와 48개국 사이에 조인됨

6. 미.일 안전보장조약 (1952년 4월)

가. 대일 강화 방침 : 오키나와 제도의회는 일본으로의 복귀를 결의함

나. 미국에 대한 자국 내 영토를 군사기지로 제공하고 미국은 일본의 방위를 책임진다

다. 일본 본토에서는 모든 교전국과의 강화를 요구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사회당은 강화조약의 찬부를 놓고 분열함

7. 국제 사회로의 복귀

가. 강화조약의 발효

- * 1952년 4월 28일 강화조약의 발효로 일본의 주권은 회복됨
: 오키나와 내각은 경찰예비대를 보안대로 고치고 해상경비대를 신설함
- * 미국과 MSA(상호방위 원조협정)를 체결하고 방위력 증강의 의무로 보안대, 해상 경비대를 육상자위대, 해상자위대로 발전시키고 항공자위대를 신설함 (1954년 7월)

나. 자유민주당의 결성 (1954년 12월) : 하토야마 내각 → 보수합동 실현

- * 1950년대 말부터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제3세계가 등장함에 따라 세계는 미.소 양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바뀌어 가고 있었다.
- * 이러한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일본의 정치는 보수당인 자민당에 의하여 주도되었다.
- * 일소 공동선언 조약(1956년 10월), 국제연합 가입(12월)

다. 냉전 체제의 강화

- * 미국-타이완 상호방위조약 체결. 동남아시아 집단방위조약기구(SEATO) 성립 : 1954년
- * 독일의 재군비 인정 및 NATO가입. 소련 등 8개국이 동유럽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바르샤바 조약)

8. 평화 공존의 기운과 평화운동

가. 평화 공존의 기운

- * 6.25 휴전, 인도차이나 휴전, 베트남 종전, 베트남 통일, 캄보디아, 라오스 독립 약속
- * 중국과 인도의 평화 5원칙 발표. 제1회 아시아, 아프리카회의가 열림
: 식민주의 폐기와 평화의 확립 요구(반동 10원칙) → 제3세계 나라들이 세계정치에 커다란 힘
- * 민족 주권의 존중과 평화 공존이 세계사에 커다란 힘이 됨 : 미국과 소련 간의 평화 공존의 기운

나. 미군 기지 확장에 대한 반대

- * 이시카와, 도쿄도, 오키나와 등에서 기지 반대 운동
- * 수소폭탄 실험에 의한 참치 어선 피해로 금지 서명으로 제1회 원폭 금지 대회가 열림

9. 미.일 안전보장조약의 개정

가. 기시 노부스케 내각은 제1차 방위력 정비 계획을 결정함과 동시에 조약 개정 교섭에 들어감 (1958년 10월) : 미일 상호 협력 및 안전보장조약(신안보조약)이 조인됨

나. 신안보조약에 대한 문제를 제기되어 신안보조약 반대 운동이 급속히 확대됨

: 내각과 자유민주당은 중의원에 경찰대를 도입하여 단독 체결을 강행함

다. 강행 체결에 대한 국민의 계속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준서가 교환되고 내

10. 1960년대의 고도 경제 성장

가. 미국과의 협조 체제 속에서 일본의 경제는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일본은 195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연평균 10%에 달하는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산업 구조도 선진국과 같은 제2, 3차 산업 중심으로 바뀌었다

- * 일본은 냉전 체제 속에서 미국과의 유대를 강화하여 자위대라는 군대를 보유하면서 경제를 희생시키는데 성공하였다.

나. 고도 경제 성장

- * 도쿄 올림픽(1964년) 도카이도 신칸센, 메이신 고속도로 개통(1965년)
- * 도시의 인구 집중 : 일본 주택공단 발족(1955년), 오사카 등에 뉴타운 건설(1960년)
- * 가전 제품의 보급 : 텔레비전, 전기세탁기, 전기냉장고 (세 가지의 神器)
- * 진무(神武) 경기 : 1955년대 후반부터 연 10%를 넘는 경제의 고도 성장
- * 고속도로만 장비, 주택 단지 조성, 자동차 급증, 에너지자원의 석유로 전환

다. 소득 배가정책 : 이케다 하야토 내각

- * 국민의 관심을 정치에서 경제로 전환
 - 석유 화학공업, 전자공업 등 새로운 산업부문이 발전함
 - 무역의 자유화. 자본의 자유화 (1960년), 경제협력기구 가입(OECD, 1964년), 국제통화기금에 포함
- * 무역 수지의 흑자
 - 중화학공업제품 중심의 수출 확대. 동남아시아에 대한 해외 투자 증가
- * 농촌의 변화
 - 공업 발전에 의한 농공 간의 소득 격차 해소와 농업 경영의 자립을 호소하여 농업 기본법이 제정 : 농업 인구의 감소와 전업 농가의 감소

다. 전후의 고도 성장

- * 1955년~1965년 : 광공업 생산 3.7배 증가, 경제 성장률 연평균 10%
- * 1965년~1973년 : 국민 총생산량 3.5배 증가, 경제 성장률 연평균 10%. GNP 세계 2위

라. 전국 종합개발 계획

- * 지방 산업도시의 발달 : 물, 대기 오염 문제 발생 → 공해대책기본법 발표, 환경청 설치
- * 지역의 생활과 환경을 지키는 주민운동 : 공해, 복지대책의 성과 → 미노베 료키치 도쿄도 지사

마. 베트남 전쟁과 일본

- * 베트남 내전 : 1960년 ~ 1973년 → 미국의 패퇴
 - 미국이 내전에 개입하면서 일본의 미군 기지는 베트남 전쟁의 후방 기지로 활용됨 : 베트남 반전 운동, 미군의 무기, 군용품 수송에 반대하는 운동, 오키나와 기지 철거 요구
 - 한일 기본 조약 조인(1964년), 아시아에서 미일 협력의 강화를 약속함(1965년)

11. 戰後 문화의 발자취

1. 戰後 문화의 출발

가. 역사의 과학적 연구

도로 유적, 이와주쿠 유적, 후지와라씨 삼대의 유체 조사와 神代부터 천황의 사적을 중심으로 기술된 역사 교과서가 새로 쓰임

나. 자연과학

물리학 분야의 노벨상 수상, 일본 학술회의 발족

다. 문 학

노마 히로시의 '진공지대', 다니자키 준이치로의 '세설' 등이 간행됨
라. 영화와 라디오
구로자와 아키라 감독의 '라쇼몬' : 1951년 베네치아 영화제에서 그랑프리 수상

2. 텔레비전, 만화, 주간지

가. 텔레비전 방송(1953년) : 활자의 소외 현상, 영화, 연극, 음악회의 관객 감소
나. 주간지, 만화가 성행 및 비디오 보급 (1980년대)

3. 문화와 학술의 발전

가. 과학 기술의 연구 개발

원자력 기본(1955년), 남극 관측(1956년), 최초의 인공위성 '오스미'(1970년)

나. 급속한 개발

유적의 파괴가 진행되었지만 다카마스 고분의 벽화, 이나리아마 고분의 칠검 명문, 요시노가리 유적 등 새로운 역사 발전도 있었음

다. 문 학

사회파 추리 소설, 역사 소설

라. '사요(斜陽)'라고 불리는 영화

전쟁과 청춘, 이웃집 토토로 등 현재적 문제를 추구하는 작품

11. 한편 일본은 주변 국가들과 청산하지 못한 과거의 무제들을 그대로 떠안고 있다.

한국과도 1965년 한, 일 기본조약을 맺어 국교를 재개했지만 당시 현안이었던 독도 문제 등은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겨 두었다.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일본은 정부 차원의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 이처럼 과거에 대한 무반성이 주변 국가와의 미래 지향적 관계를 저해하고 있다